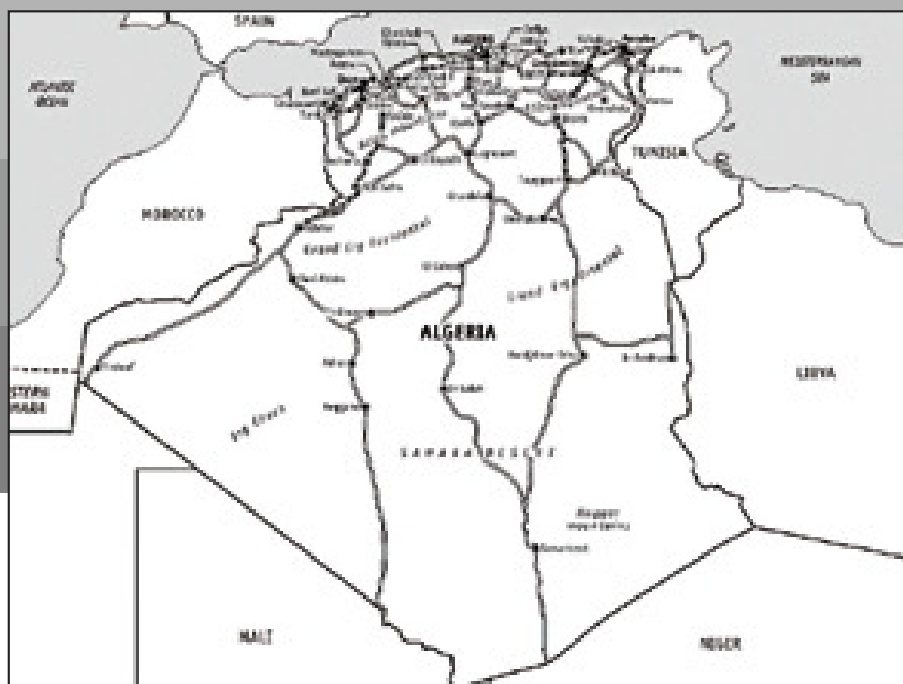


알 제 리



I. 국가개황

1. 일반개황	342
2. 정치개황	345
3. 경제개황	346
4. 알제리 역사	349
5. 우리나라와의 관계	349

II. 경제 및 정치현황

1. 경제현황	351
가. 경제상황 변천사	351
나. 국내경제	353
다. 대외거래	363
라.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369
2. 정치·사회현황	374
가. 정치상황 변천사	374
나. 정치 안정성	379
다. 사회 안정성	383
라. 대외관계	386
마. 지역경제협력기구	391
3. 종합전망	394

Ⅲ. 주요 산업

1. 농림수산업	396
2. 광업	399
3. 에너지산업	400
4. 제조업	407
5. 건설업	408
6. 교통 · 통신업	409
7. 금융 · 서비스업	413

Ⅳ.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417
가. 외국인투자 정책	417
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419
다. 외국인투자 절차 및 제도	421
2. 외국인투자 여건	425
가. 무역 및 관세제도	425
나. 외환제도	432
다. 금융제도	434
라. 조세제도	436
마. 노동제도	442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1.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446
가. 교역현황	446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450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451
2. 진출확대 방안	451
가. 우리나라의 진출현황	451
나. 주요 경쟁국의 진출현황	452
다. 분야별 진출확대 방안	453

표 차례

<표 I-1> 최근 대 알제리 수출입 추이	350
<표 II-1> 주요 국내경제 지표	353
<표 II-2> 국내총생산(GDP) 연관 지표의 추이	355
<표 II-3> 통화 및 환율 관련 주요 지표 변동추이	359
<표 II-4> 정부재정 수입·지출내역 추이	362
<표 II-5> 연도별 상품 수출입 추이	364
<표 II-6> 주요 거래상대국의 교역비중 추이	365
<표 II-7> 국제수지 내역 변동추이	368
<표 II-8> 주요 외채통계 내역 변동추이	370
<표 II-9> 주요 외채상환 내역 변동추이	371
<표 II-10>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금액 추이	373
<표 II-11> 인구규모 및 인구증가율 추이	383
<표 II-12> 국제 원자재 가격전망	395

표 차례

<표 Ⅲ-1> 산업별 고용인구 변화 추이	396
<표 Ⅲ-2> 광물 · 금속 생산량 추이	400
<표 Ⅲ-3> 원유 · 가스 생산량 추이	401
<표 Ⅲ-4>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	407
<표 Ⅳ-1> 관세개혁에 따른 관세율 요약	430
<표 Ⅳ-2> 관세법 개정안 총괄표	431
<표 Ⅳ-3> 개인소득세율 요약	438
<표 Ⅳ-4> 이중과세 방지협정 현황	441
<표 Ⅴ-1> 연도별 한-알제리 교역 현황	447
<표 Ⅴ-2> 대 알제리 주요 수출품목 현황	448
<표 Ⅴ-3> 대 알제리 주요 수입품목 현황	449
<표 Ⅴ-4> 대 알제리 해외직접투자 현황	450

그림 차례

<그림 I -1> 중동지역 국내총생산(GDP) 비교.....	346
<그림 I -2> 중동지역 1인당 국민소득 비교.....	346
<그림 I -3> 중동지역 경제성장률 비교.....	348
<그림 I -4> 중동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	348
<그림 II -1> GDP 및 인플레이션 지표의 변동추이.....	357
<그림 II -2> 브렌트산 원유의 국제가격 추이.....	363
<그림 III -1> 알제리의 주요 가스생산 및 유통시설 경로	404

참 고 차 례

<참고 1> 기후와 자연환경	344
<참고 2>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	378
<참고 3> 알제리-EU 제휴협정	429
<참고 4> 사회보장제 제도	445

요 약 (Executive Summary)

□ 경제현황: GDP 906억 달러(2005), 1인당 GDP 2,762달러

- 경제성장 : 유가 변동 및 농작물 작황에 의존적인 경제
- 물가·환율: 물가상승률 낮으나 통화관리능력 미흡
- 재정상황: 긴축 재정정책 시행 완화, 재정수지 흑자 확대
- 무역동향: 원유·가스 수출 의존도 심화, 상품수지 흑자 유지
- 국제수지: 경상수지 변동 폭 확대, 외환보유액 지속적 증가
- 외채상황: 1990년대 외채위기 이후 외채구조 개선추세
- 국제신인도: OECD 3등급 등 중상급 신용도 유지
 - 경제성장률: 6.6%(2005), 소비자물가상승률: 4.7%(2005)
 - 재정수지/GDP: 13.8%(2005), 경상수지/GDP: 21.9%(2005)

□ 정치현황: 독립전쟁 이후 정치 불안정 상황의 호전

- 정치안정: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정권기반 강화
- 사회안정: 인구증가율 둔화, 사회 양극화 현상 유발
- 대외관계: 9·11 테러 협조로 대미관계 개선, 대불관계 긴밀
- 지역협력: OPEC, 아랍국가연맹, 아랍통화기금 등 가입
 - 2004년 4월 대선 결과: 부테플리카 대통령 득표율 85%

□ 주요 산업: 원유·가스 산업의 경제의존도 여전

- 산업구조: 농림수산업 10.2%, 광공업 55.1%, 서비스업 34.7%
- 농 업: 식품 수입의존도 45%, 경작지의 1/3 공공소유
- 광 업: 금·다이아몬드 광산 위주 생산, 광업 기반 낙후

요약

- 에너지: 원유·천연가스 생산 의존, 생산·유통 사업 적극 추진
- 제조업: 생산실적 저조, 에너지산업 생산 집중
- 인프라: 교통체계 투자 부족, 통신 산업 발전단계
 - 원유 매장량: 아프리카 3위, 가스 매장량: 세계 8위 수준
 - 원유·가스 산업비중: GDP의 40%, 상품수출의 97%,
재정수입의 69%

□ 외국인투자 환경: 제약적인 투자환경 및 은행시스템 개혁 시급

- 외국인투자 정책: 투자법 개정, 투자개발청 설립, 민영화 추진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경제 개발지구내 투자 및 자국 경제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외국인투자 제도: 제약적인 수입관리·외환제도, 관료주의 및 부패 만연, 비효율적인 은행제도

□ 진출확대방안: 에너지, 정보·통신 및 건축·건설 분야 진출 유망

- 양국간 교역현황: 1998년 이후로 교역규모 확대 추세
 - 대 알제리 상품 수출/수입: 3억 4천만 달러/1억 6,600만 달러(2005)
 - 주요 수출/수입 품목: 운송기계, 전자제품·부품, 화학제품(수출)/
원유·가스(수입)
- 대 알제리 직접투자 현황: 총 5건, 2억 2천만 달러(2005년 말)
 - 우리나라의 진출현황: 진출기업 대부분 철수하여 진출실적 미미

I. 국가 개황

1. 일반개황

- 국 명: 알제리 인민공화국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 위 치: 북부 아프리카(지중해 연안)
- 면 적: 2,381,741 km²(한반도의 10배)
- 인 구: 3천 236만 명(2004년)
- 주요도시: Greater Algiers(수도 포함, 467만 명),
Oran(105만 명), Constantine(76만 명),
Annaba(54만 명)
- 민족구성: 아랍인(81%), 베르베르인(19%)
- 종 교: 수니파 회교(98%), 가톨릭
- 언 어: 아랍어(공용어), Berber어(Tamazight), 불어
- 독 립: 1962년 7월 5일 독립(132년간 프랑스 식민지)
- 국제기구 가입현황: OPEC, UN, IMF, AU, 아랍연맹 등
- 공 휴 일: 1월 21일(Eid al-Adha), 2월 12일(Martyr's Day), 11월
3-5일(Eid-al-Fitr) 등 이슬람교 공휴일(음력 기준),

알 제 리

1월 1일(New Year), 5월 1일(Labour Day), 7월 5일(독립
일), 11월 1일(혁명기념일)

- 시 차: GMT(하기에는 Summer Time 제도 적용하여 1시간 앞 당
겨 실시함, 한국보다는 9시간 늦음)
- 기 후: 온대 해양성 기후(남부지역: 열대·건조 기후)
일일 최저-최고 평균기온: 8월-22~29℃, 1월-9~15℃
평균 강우량: 건기(7월)-1mm, 우기(12월)-140mm

<참고 1> 기후와 자연환경

- 알제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2의 영토대국(수단 다음)으로 총
면적은 2,381,741 km²에 달함. 알제리 국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
는 북부지역은 산악지대이면서도 비교적 습한 기후임. 해안을 따
라가면, 연간 강우량이 평균 1,000 mm 이상인 지역도 있음.
- 내륙으로 들어가면, 기후는 건조하여 강우량이 연간 200~400
mm에 불과함. 동 지역은 알제리 남부 국경지대에 1,500 km 펼
쳐져 있는 사하라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음. 사하라사막의 기후는
강우량이 연간 130 mm 이하의 낮은 수준이고 기온은 55℃를 넘
는 고온임.
- 알제리의 농경지 면적은 3천 960만 ha로 추산되며, 이중 3천
170만 ha는 초지나 덤불 지역임. 알제리 정부는 고지대나 사하
라 지역에서의 사막·스텝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농작
물은 주로 좁은 해안을 따라 형성된 비옥한 토지(평원)에서 재배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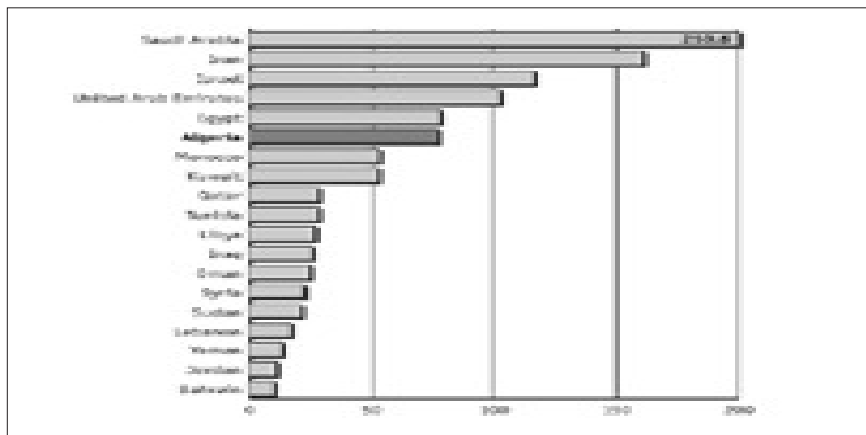
2. 정치개황

- **국가원수:**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국방부 장관 겸임)
(2004년 4월에 5년 임기의 제7대 대통령에 중임 선출)
- **정부형태:** 인민공화제(대통령중심제)
- **주요내각:** Ahmed Ouyahia 총리, Bougerra Soltani 국무부 장관
(2005년 5월 내각교체 단행)
※ 국무회의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총리가 주관함.
- **의 회:** 양원제(하원 380석, 상원 144석)
※ 의원의 2/3는 선거로 선출, 1/3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
※ 주요 선거일정: 2002년 5월 30일(의회 선거, 차기: 2007년 5월)
2004년 4월 9일(대통령 선거, 차기: 2009년 4월)
2002년 10월 23일(지방선거)
- **주요정당:** 국민해방전선(FLN), 민주국가회(RND), 사회주의전선(FSS)
- **행정구역:**
 - 중앙정부 단위 조직: 48개의 도(Wilayas), 1,541개의 읍/면(Baladyas)
 - 도 단위 행정조직: 227개의 군(Dairas)

3. 경제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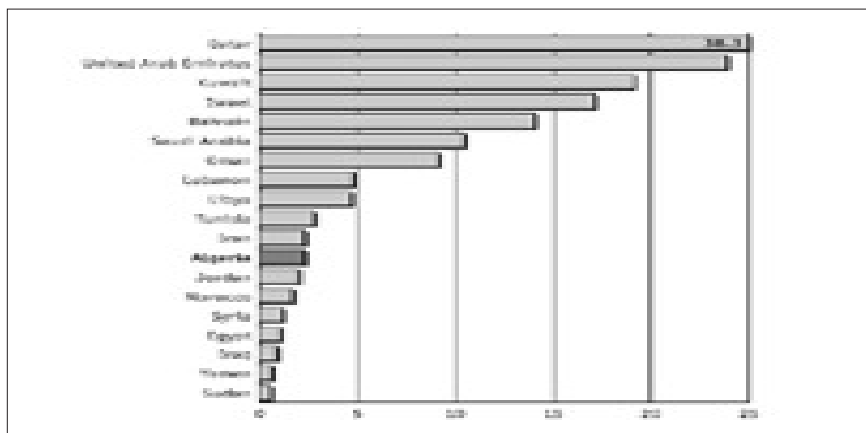
□ GDP(2005년): 906억 달러

<그림 I-1> 중동지역 국내총생산(GDP) 비교
(2004년 기준, 단위: 10억 달러)



□ 1인당 GDP(2005년): 2,762달러

<그림 I-2> 중동지역 1인당 국민소득 비교
(2004년 기준, 단위: 천 달러)



I 국가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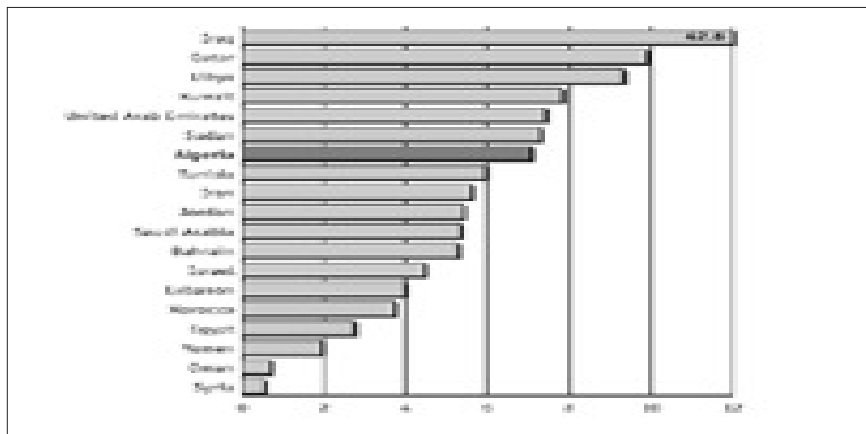
- 화폐단위: Algerian Dinar(AD)=100 Centimes (or 20 Douros)
※ 2005년 중 미 달러화 대비 평균 환율: 73.28AD
- 회계연도: 1.1 ~ 12.31
- 산업구조(2003년): 농림수산업 10.2%, 광공업(제조업 포함) 55.1%, 서비스업 34.7%
- 주요 수출품(2003년): 원유(116억 달러), 천연가스(44억 달러), 압축가스(42억 달러), 정유제품(33억 달러), LPG(26억 달러)
- 주요 수입품(2003년): 자본재(41억 달러), 식료품(26억 달러), 반가공품(22억 달러), 소비재(16억 달러)
- 주요 수출국(2004년): 미국(21.1%), 이탈리아(16.1%), 프랑스(10.6%), 스페인(9.4%)
- 주요 수입국(2004년): 프랑스(32.3%), 이탈리아(8.8%), 스페인(6.9%), 독일(5.8%)
- 주요 부존자원: 원유, 천연가스
- 무역규모(2005년): 수출 468억 달러, 수입 219억 달러
- 경상수지(2005년): 198억 달러 흑자
- 외환보유액(2005년 말): 563억 달러
- 총외채잔액(2005년 말): 211억 달러

알 제 리

□ 경제성장률(2005년): 6.6%

<그림 I-3> 중동지역 경제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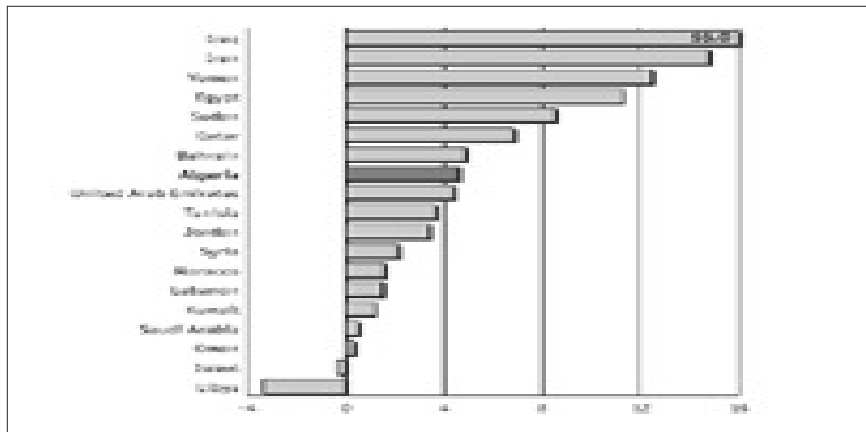
(2004년 기준, 단위 : %)



□ 소비자물가상승률(2005년): 4.7%

<그림 I-4> 중동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

(2004년 기준, 단위 : %)



4. 알제리 역사

- BC 1250~AD 646: 카르타고, 로마, 누미디에(Numidie) 시대
- 647~1556: 이슬람 도래, 7개 왕조 명멸
- 1518~1830: 오스만 투르크 통치 시대
- 1830~1962: 프랑스 식민 시대
- 1954. 11. 1: 알제리 혁명(독립운동) 발발
- 1962. 7. 5: 알제리 독립
- 1962. 9.29: 알제리 초대정부 구성
- 1963. 9.15: Ahmed Ben Bella 대통령 당선
- 1971. 2.24: 석유 국유화
- 1991. 6. 5: 비상사태 선포
- 1992. 2. 2: 비상사태 선포
- 1999. 4.15: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 당선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 1. 15. 수교 (북한과는 1963. 4. 18)
- 주요협정 체결현황: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2000), 문화협정(2000), 이중과세방지협정(2001),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2001)

알 제 리

□ 교역현황:

<표 I -1>

최근 대 알제리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주요 품목
수 출	153	186	225	346	340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수 입	115	205	192	241	166	LPG, LNG, 원유, 가스

자료 : KOTIS.

□ 해외직접투자 현황(2005년 말 기준): 5건, 219,543천 달러

Ⅱ. 경제 및 정치현황

1. 경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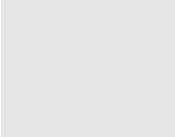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가. 경제상황 변천사

□ 1970년대: 중공업 육성 시작

- 1962년 독립 이후, 알제리 경제는 농업 및 공업부문에서 모두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체제를 형성함. 정부 주도하의 개발계획이 경제정책의 주요 추진수단임.
- 1971년, 석유산업은 국유화되었고 농업은 집단소유 체제하에 놓였는데, 당시 정부는 급속한 석유수출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와 해외차입으로 중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1970년대 말에는 경제성장이 정체되었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정의 과다지출로 알제리의 국가채무는 증대하기 시작함.

□ 1980년대: 외채상환 부담 가중

- 1980~84년에는 기존의 경제개발계획이 지속되었으나, 거시경제 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정부는 1985~89년에는 기존 개발계획을 수정하였음. 또한, 국제유가의 폭락 기간 중 식료품 수입 비용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은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제조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정부보조를 받아 왔으나, 구조조정을 통하여



알 제 리

관리가 용이한 소규모 단위조직으로 재편성되었음. 정부가 제조업의 개혁 지원을 위하여 대규모 자금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조달하였으나, 에너지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자 외채상환 부담이 증대되는 결과가 초래됨.

- 1980년대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외채상환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IMF와 대기성차관(Stand-By Agreement) 협상을 1989년부터 시작하였음.

□ 1990년대: IMF의 대 알제리 차관 지원

- 1994년 4월 정부는 IMF와 제3차 대기성차관을 체결하고, 1995년 5월에는 3년간 18억 달러의 확대신용차관(Extended Fund Facility: EFF)을 체결함. EFF 지원은 1998년 5월에 종료되었으나, 알제리의 거시경제를 예상외로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이후 알제리 정부는 차관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비교적 긴축적인 통화·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00년대: 경제 민영화 부진

- 알제리 정부는 경제개혁의 필요성과 민영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2002년, 테마르(Abdelhamid Temmar) 민영화장관은 100개의 정부소유 기업 가운데 매각대상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하였으나, 2003년 초 사회노조(UGTA)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테마르 장관이 물러나면서 동 민영화 계획은 중단되었음.
-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에 사회노조(UGTA)를 동원하였으며, 2005년 5월 내각교체로 테마르 전임 장관이 내각에 복귀하여 민영화 추진의 부활을 예고함.

II 경제 및 정치현황

- 지난 몇 년간 민영화 추진실적은 2000년 5월의 독일 세제생산기업 Henkel의 ENAD에 대한 경영인수, 2001년 10월의 인도 Ispat(LM Mittal의 전신)의 국영제철기업 Sider 매수, 2005년 4월의 2개 비료공사의 스페인 Villa Mir 그룹에 대한 매각에 그침.
- 2005년, IMF는 Article IV 리포트를 통해 알제리 정부가 관세시스템 개혁 및 무역체제의 현대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영화 등 다른 구조조정 개혁 분야에서는 이행정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평가함.
- 알제리 정부는 IMF 스타일의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는데, 아직도 실업 극복을 위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6% 수준으로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함. 또한, 환율통제 및 무역장벽의 점진적인 제거, 가격 보조 철폐, 조세제도의 개혁,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등도 추진할 계획임.

나. 국내경제

<표 II-1> 주요 국내경제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GDP(억 달러)	549	559	662	760	906
1인당 GDP(달러)	1,732	1,731	2,018	2,275	2,762
경제성장률	2.6	4.1	6.8	5.9	6.6
소비자물가상승률	3.5	2.3	3.5	4.6	4.7
재정수지 / GDP	4.0	-1.0	0.6	5.9	13.8
대미달러 환율	77.22	79.68	77.39	72.06	73.28

자료: EIU, Country Report, January 2006.

(1) 경제성장

□ 유가 변동: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

- 알제리의 경제성장은 유가와 강우량 수준에 크게 의존적임. 원유·가스 산업의 점진적인 성장으로 1970년 대 중반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은 10년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었음. 경제성장률이 1980년에는 17%로 최고치를 기록함.
- 1985년 말 국제유가의 폭락으로 1990년대 들어 경제성장이 침체되었으며, 정치적 혼란사태가 알제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1993~94년 중 경제상황은 극도로 위축되었음.
- 그러던 중 1995년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 반전으로 알제리의 경제상황은 호전되어 경제성장률이 1995년 3.8%, 1996년 4.1%를 각각 기록하였음. 1997년의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이 다시 하락 반전되어 동년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함.

□ 농산물 작황: 경제성장의 추가 요인

- 1999년에는 원유·가스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5.1%에서 3.2%로 성장하는 데 그쳤음. 1999년의 성장부진은 농업생산 증가율이 전년의 11.4%에서 2.7%로 크게 위축된 데 기인함. 이 같은 성장패턴은 2000년에도 지속되었는데, 당시 원유·가스 산업의 성장률은 5% 수준이었으나 가뭄으로 밀 작황이 부진함에 따라 농업생산 증가율이 5%에 그쳐 2000년 경제성장률은 2.4%를 기록함.

Ⅱ 경제 및 정치현황

- 2001년에는 제조업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원유생산의 점진적 증대 및 농작물의 작황 호전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높은 2.6%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02년에는 원유생산 증대, LNG 생산 회복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인한 내수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4.1%를 기록함.
- 2003~04년은 알제리 경제에서 원유·가스 생산 증가가 GDP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기간이었음. 정부는 2003년 중 경상 GDP가 16%나 증가(실질기준: 6.8%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음.

<국내총생산 증대 요인>

- 수출 증가: 국제유가의 15.3% 상승과 원유생산의 30% 증대, 천연가스 수출 급증으로 상품·서비스 수출 증대(25.3%)
- 총고정자본투자 확대: 원유·가스 산업의 급속한 팽창으로 명목기준으로 13.6% 증가(수입 7.9% 증가로 국내투자도 호전)
- 소비 회복: 근로자 임금 상승, 농작물 작황 호전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민간소비 증가율 6.9%, 공공소비 증가율 11% 기록

<표 II-2>

국내총생산(GDP) 연관 지표의 추이

단위: 억 AD, %

	1999	2000	2001	2002	2003
민 간 소 비	16,707	17,142	18,477	19,879	21,249
총 고 정 자 본 투 자	7,898	8,526	9,655	11,113	12,652
상품·서비스 수출	9,115	17,348	15,509	16,058	20,134
상품·서비스 수입	7,376	8,552	9,307	11,592	12,506
경 상 GDP	32,382	41,235	42,608	45,377	52,642
(증 가 율)	(14.4)	(27.3)	(3.3)	(6.5)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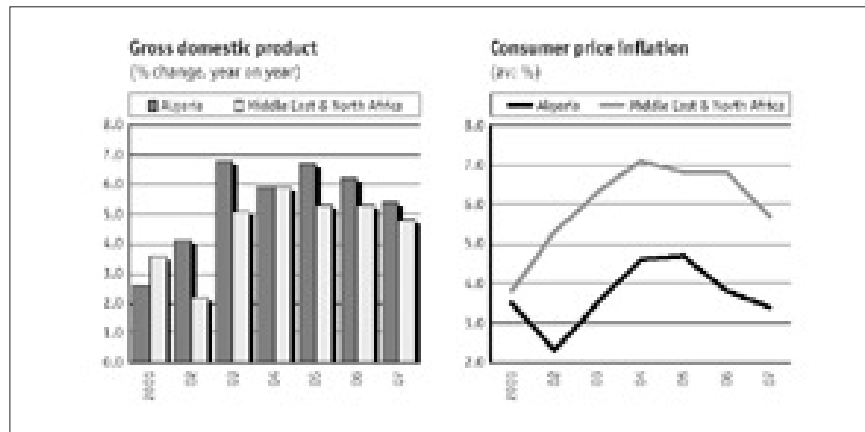
자료: EIU, Country Profile, September 2005.

□ 원유·가스 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경제에서는 수출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알제리의 수출비중은 경상 GDP 대비 38%로 북아프리카 지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참고로 이집트와 모로코의 경우는 각각 22%, 26%임.
- 그러나 알제리 수출에서 교역대상국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자본집약적인 원유·가스 산업에 제한되어 있음. 알제리 국민들의 동산업 종사자가 많지 않으며, 정부는 재정지출을 원유·가스 산업의 수출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형편임. 문제는 재정지출이 낭비적인 데다 정치적 편의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는 점임.
- 알제리 정부는 2000년 이후 원유·가스 산업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사회적 동요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재정지출을 추가로 증대할 계획을 수립함. 2002~03년 당시 대선일 정도 다가오자, 재정지출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지출이 발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지출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1998~2004년 중 건설 및 공공부문(GDP 성장의 제2의 기여 부문) 일자리가 20만개 정도 창출되었고 실업자수도 200만 명에서 170만 명 수준으로 17.7% 감소하였음.
- 반면, 동 기간 중 농업부문의 GDP 대비 생산비중이 11.5%에서 9.3%로 위축되었으나, 농업은 알제리 경제의 고용인구 측면에서 제3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Ⅱ 경제 및 정치현황

<그림 Ⅱ-1> GDP 및 인플레이션 지표의 변동추이



자료: EIU, Country Report, January 2006.

(2) 물가 및 환율

□ 신축적인 통화정책 시행 노력

- 알제리의 통화정책은 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1990년에 도입된 ‘화폐 및 신용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화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알제리 정부는 1995년 말 재무성증권을 거래하면서 간접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취하기 시작하였음. 2002년에는 알제리 중앙은행(Banque d’Algerie)은 할인율을 50 포인트(bp) 내려 5.5%로 인하하였고 은행간 자금시장(money market) 기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였음.
- 2002년 4월에는 은행들의 과도한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한

알 제 리

유동성 경매조치(liquidity auction)가 현재 중앙은행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주요 통화정책 수단임. 그 결과, 자금시장 이자율은 보다 신축적으로 결정되고 있음.

<IMF의 통화관리에 대한 지적사항>

- 원유·가스 재정수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와 은행 유동성의 변동
- 재무성증권 및 금융 시장의 취약성
- 중앙은행 포트폴리오를 위한 정부증권의 시장성 부족
- 국영은행간 이자율 경쟁 부족
- 이자율 변동에 대한 공기업의 민감도 부족
- 재정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유동성 전망 미흡
- 통계자료 및 지급결제 시스템 취약

□ 통화증가 관리 미흡

- 알제리 정부의 급격한 순해외자산 축적은 국내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유동성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2004년 통화(M1) 증가율은 32%에 달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6%를 기록함.
- 당시 국영 원유·가스공사인 Sonatrach의 예금이 급증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IMF는 알제리 정부에 정책 권고를 하였음. 이에 은행시스템의 과다한 유동성 창출을 조절하고 있다고 정부당국은 주장함.

II 경제 및 정치현황

<표 II-3> 통화 및 환율 관련 지표 변동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총통 화증 가율 (%)	13.2	24.8	36.8	16.0	11.3
대 출 이 자 율 (%)	10.0	9.5	8.5	8.0	8.0
예 금 이 자 율 (%)	7.5	6.3	5.3	5.3	2.5
미 달러화 대비 환율	75.3	77.2	57.7	77.4	72.1
유로화 대비 환율	69.5	69.2	54.5	87.6	89.6

주: 환율은 해당통화 대비 알제리 디나르화(AD)의 연평균 가치를 기준으로 함.

자료: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5.

□ 관리변동환율제도 시행

- 1994년 9월까지 중앙은행에 의해 알제리 디나르화(AD)의 가치가 관리변동환율제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 공식환율(official rate)과 암시장(black-market) 환율간의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였는데, 1989년 말 암시장 환율이 공식환율의 6배에 달하였음.
- 이런 환율격차는 1990년 말 알제리 디나르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에 의해 축소되었으나, 이후 알제리 디나르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4년 4월까지 40%나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됨.
- 1994년 9월, 중앙은행은 완전태환제도 도입을 위한 과정으로 국내 상업은행들이 경화 구매를 매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도입함. 이로써 국내 수입업자는 국내 은행시스템에서 경화를 통해 해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것임.

1) 기준율이 설정되고, 무역거래에 통상적으로 결제되는 통화의 바스켓에 대해 변동을 허용하는 시스템.

알 제 리

□ 물가: 관리 가능한 상황

- 1994~95년의 정부의 보조금 감축 조치로 소비자물가는 30%에 근접할 정도였음. 추가적인 보조금 감축, 임금상승 압박 및 공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증대에도 불구하고, 긴축 통화정책 시행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6년의 20.3%에서 1999년에는 2.1%로 크게 하락하였음.
- 알제리의 소비자물가는 1990년대 말에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0.6%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데 이어 2001년에는 3.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함.
- 2002년 이후 자금시장 이자율의 급락 및 해외자산의 급증으로 총통화(M2) 증가율이 49%를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3년 3.5%, 2004년 4.6%로 각각 상승추세를 보임.
- 알제리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하여 IMF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함. 첫째,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는 대부분의 물가가 통제되었던 1998년의 민간소비의 구조에서 유래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곡물가격이 생산수준에서만 반영되기 때문에 농작물 작황부진에 따른 총체적인 소비자물가지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3) 재정수지

□ 긴축 재정정책 시행 완화

Ⅱ 경제 및 정치현황

- 1990년대 후반 IMF 관리체제 하의 알제리 재정정책은 1998~99년의 국제유가 하락으로 긴축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왔음.
- 그러나, 1999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하고 2001년 봄 베르베르어를 구사하는 카빌리아(Kabylia) 지방의 대중시위 발발, 경기부양 및 실업 극복을 위하여 긴축 재정정책이 완화기조로 급선회하였음. IMF에 따르면, 2001~02년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대한 것으로 나타남.
- 2003~04년의 재정지출도 각각 13%, 7.1%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정수입이 재정지출을 상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2004년도에는 공공지출이 비 원유·가스 부문 GDP의 47%에서 52%로 증대되었으나, 비 원유·가스 재정수입은 수입관세 및 비 조세 수입 감소로 위축되었음. 그러나 원유·가스 부문의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종합 재정수지 포지션은 오히려 개선됨.
 - 현재에는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기조가 우려되는 상황임. 2004년 중 최저임금의 25% 인상, 교육분야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상이전지출 확대로 재정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됨.
- 이슬람 폭력사태 수습으로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재임에 성공하였지만 농촌지역의 여권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투입되었으며, 구조조정 개혁 보다는 선거공약 지출 및 인기주의 경향과 더불어 2007년의 의회선거 등으로 재정정책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음.

□ 재정수지 흑자 확대

- 알제리의 재정수지는 지난 5년간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2004년에는

알 제 리

GDP 대비 5.9%에 달하였음. 원유·가스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한 이런 패턴은 적어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알제리 재무부의 재정적 여유는 2004년도에 정부 내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베나쉐누(Abdelatif Benachenou) 재무부장관이 재정지출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처에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였음.
- 당시 재무부장관은 우야이야(Ahmed Ouyahia) 총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마침내 2005년 5월 메텔시(Mourad Medelci) 신임 재무부장관(2003년 이전 전임 재무부장관, 직전 대통령 자문관)이 등용되면서 사태는 일단 수습됨.
- 베나쉐누 재무부장관의 퇴임으로 긴축 재정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고유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보강되는 한 지금과 같은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됨.

<표 II -4> 정부재정 수입·지출 내역 추이

단위 : 10억 AD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수 입	951	1,578	1,479	1,603	1,967	2,201
원유·가스 수입	588	1,213	1,001	1,008	1,569	1,569
조 세 수 입	315	350	398	483	520	..
관 세 수 입	80	86	104	128	143	..
총 지 출	962	1,178	1,321	1,551	1,753	1,878
임 금 지 출	286	290	324	346	380	..
경상이전지출	249	292	391	472	580	..
채 무 상 환	126	162	148	137	118	..
재 정 수 지	-11	400	158	52	214	323

자료: EIU, Country Profile, September 2005.

다.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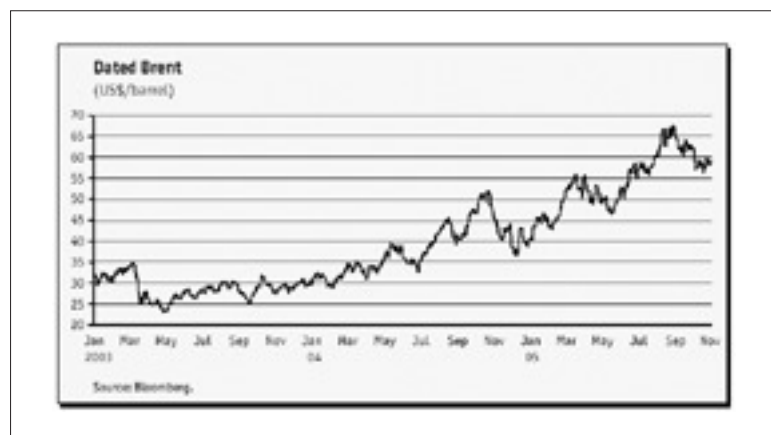
(1) 수출입동향

□ 수출: 원유 · 가스 의존도 심화

- 국제유가에 덜 민감한 장기 계약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완충되는 효과는 있지만, 알제리의 수출은 원유 가격 및 생산량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원유 · 가스는 전통적으로 수출실적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높은 국제유가로 2001~02년에는 동 비율이 97%, 2003~04년에는 98%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그림 Ⅱ -2> 브렌트산 원유의 국제가격 추이

단위 : 달러/배럴



자료: EIU, Country Report, January 2006.

알 제 리

□ 상품수지 흑자기조 유지

- 유럽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대로 인한 알제리 원유·가스 수출의 점진적인 증가는 상품수지 흑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유·가스 수출물량의 증대로 상품수지 흑자가 1996년의 41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68억 달러로 증대되었음. 그러나 1998년에는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상품수지가 15억 달러로 축소되었음.
- 1999년 하반기의 유가 회복은 상품수지를 41억 달러로 다시 증대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2000년에는 유가의 추가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123억 달러로 급증하였음.
- 2001~02년에는 원유·가스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는 축소되었음. 2004년 수입은 2000년 수준의 두 배를 기록하였지만 수출실적이 34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상품수지가 16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표 II -5>

연도별 상품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상 품 수 출	21,650	19,001	18,710	24,460	34,204
(증 감 률)	(73.0)	(-12.2)	(-1.5)	(30.7)	(39.8)
상 품 수 입	9,350	9,480	12,010	13,320	17,950
(증 감 률)	(4.4)	(1.4)	(26.7)	(10.9)	(34.8)
상 품 수 지	12,300	9,521	6,700	11,140	16,254
(증 감 률)	(200.0)	(-22.6)	(-29.6)	(66.3)	(45.9)

자료: EIU, Country Profile, September 2005.

II 경제 및 정치현황

□ 미국이 알제리의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부상

- EU가 알제리 수출의 55%, 수입의 57%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임. IMF에 따르면, 2004년 중 알제리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었으나 미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알제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음. 국가별 수출시장 순위는 미국(21.1%), 이탈리아(16.1%), 프랑스와 스페인의 순이었음.

<표 II -6> 주요 거래상대국의 교역비중 추이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상대국					
이탈리아	21.0	22.8	18.4	18.9	16.1
미국	15.8	13.7	13.2	17.9	21.1
프랑스	13.5	14.6	12.6	13.2	10.6
스페인	10.8	11.3	11.2	10.9	9.4
수입상대국					
프랑스	21.4	23.4	20.7	32.9	32.3
이탈리아	8.1	10.2	8.8	10.2	8.8
스페인	5.4	5.1	4.8	6.5	6.4
독일	7.0	7.7	6.6	6.1	5.8

자료: EIU, Country Profile, September 2005.

(2) 경상수지

□ 경상수지 변동 폭 확대

- 알제리의 경상수지는 전통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

알 제 리

를 취하고 있음. 1990~92년 쿠웨이트의 이라크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였을 당시 경상수지는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하였음.

- 경상수지는 1994년에 18.4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가 1995년에는 적자규모가 22.4억 달러로 더욱 확대되었음. 1996년에 알제리는 비교적 높은 국제유가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41.3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2.7%인 12.6억 달러를 기록함.
- 1998년에는 국제유가의 하락(배럴당 평균 12.76달러로 33.3% 하락)으로 경상수지는 9.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1999년 4월 이후 수출이 급속히 회복되고 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2천만 달러의 소폭 흑자를 기록함.
- 2000년, 원유 가격상승과 생산증대로 경상수지는 GDP의 17% 수준인 91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2001년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하여 경상수지는 GDP의 12.8%인 70억 달러를 기록함. 2002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수입실적이 급증하여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7.9%인 44억 달러로 다시 축소됨.
- 2003년에는 수입실적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었지만,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11.8%인 7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되어 2004년의 경상수지는 GDP의 15.8%인 122억 달러를 기록함.

□ 경상이전수지 흑자, 서비스·소득수지 적자

- 1980년대 말까지 민간이전수지가 국제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

II 경제 및 정치현황

- 았으며, 유럽지역 등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 수입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알제리 정부는 본국 송금에 대한 인센티브 제 공으로 경상이전 거래가 199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 유로화의 지속적인 강세는 유럽지역 거주자들의 본국 송금규모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IMF에 따르면 2003, 2004년 중 이전수지 흑자는 각각 11.4억 달러, 13.2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서비스·소득수지 적자는 2001~02년에 3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IMF 추정에 따르면 원유·가스 산업개발과 관련한 서비스 지출증대로 동 적자가 2003년의 45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54억 달러로 증대됨.
 - 1991년 채무 이자지급 규모가 23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1994년에는 16억 달러로 축소됨. 1994년에는 이자지급 금액이 파리클럽 채권단의 협상 결과 리스케줄링 되어 이자지급분이 2001년의 15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1억 달러로 축소됨.
 - 비 원유·가스 수출은 1997~2000년 중 1998년 3.7억 달러, 1999년 4.1억 달러, 2000년 6.5억 달러로 상당히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는데, 이중 대부분은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채무의 현물상환의 결과에 기인함. IMF에 따르면, 동 채무 상환금액은 2004년 기준으로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1987~93년에는 국제수지 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입억제 정책이 추진되었음. 1994~95년의 수입증대는 IMF, 파리클럽 등으로부터의 자금지원으로 이뤄졌음.

<표 II -7>

국제수지 내역 변동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상품수지	12,300	9,521	6,700	11,140	16,256
수출	21,650	19,001	18,710	24,460	34,206
수입	9,350	9,480	12,010	13,320	17,950
경상수지	9,140	6,999	4,368	7,759	12,218
서비스수입	910	910	1,300	1,570	1,854
서비스지출	2,360	2,440	2,478	2,891	3,877
소득수입	380	850	690	488	847
소득지출	2,880	2,510	2,915	3,684	4,185
경상이전수입	1,293	1,349	1,373	1,625	1,891
경상이전지출	500	681	301	489	569
자본수지	422	1,174	969	1,177	3,480
FDI 유입	440	1,200	1,000	1,200	3,500
FDI 유출	20	30	35	30	30
포트폴리오 투자유입	2	4	4	7	10
포트폴리오 투자유출	0	0	0	0	0
외환보유액	12,024	18,081	23,238	33,125	43,246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5.

□ 외환보유액 지속적 증가

- 2000년 원유 가격상승 및 생산증대로 외환보유액은 실질적으로 늘어나 IMF에 따르면, 동년 말 외환보유액이 120억 달러로 수입의 1년 분에 달하였음. 이런 패턴은 2001년에도 지속되었는데, 유가 하락에도 수출수입 및 기타 외환유입액이 증가하여 외환보유액은 수입의 18개월분에 달하는 181억 달러를 기록함.
- 2002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2002년 232억 달러(수입의 19.4개월

II 경제 및 정치현황

분), 2003년 331억 달러(수입의 2년분), 2004년 432억 달러, 2005년 6월 말 470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라.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외채 상황

□ 1980년대에는 외채상환실적 비교적 양호

- 1989년 초 외환보유액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때까지 국제 상업은행들이 여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제리의 외채상환실적은 양호한 편임. 1989년 과중한 채무구조 및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알제리 정부는 IMF와 6억 달러의 대기성차관 협상을 체결함.

□ 1990년대 이후 경제위기로 채무 리스케줄링 협상 추진

- 1991년 중반에는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²⁾이 74%로 급상승하여 총 3억 SDR(4.29억 달러 상당)의 제2차 대기성차관이 체결되었음. 당시 상업 채권단과의 협상은 알제리가 8억 달러의 상업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요구한 것임.
- 1991년 당시 국제 상업은행들과의 채무협상으로 32억 달러 상당의 리파이낸스 거래가 성사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은 1992년 71.7%, 1993년 76.3%를 기록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일본 리스업체와의 협상으로 90억 달러의 채무상환에 대한 지급연기가 이뤄졌음.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외채원리금 상환금액의 상품·서비스 등 총수출실적 대비 비율임.

알 제 리

- 1994년 1월, 알제리 정부의 중장기 채무에 대한 전면적인 상환불이행(95억 달러의 금융 갭 발생으로 Default) 선언으로 동년 4월 IMF와의 제3차 차관협정이 체결됨. 동년 5월 파리클럽에서 53억 달러의 정부채무(Sovereign Debt) 리스케줄링으로 알제리의 D.S.R.은 1995년 34%, 1997년 27%로 하락하였음.
- 1995년 7월에 종결된 70억 달러의 제2차 파리클럽 리스케줄링으로 1995~97년 기일도래 원금과 1995년 이자(53억 달러)에 대해 15년간 연기하는 조치가 취해짐. 또한, 1996년 6월 27일에는 32억 달러의 채무를 리스케줄링 하는 런던클럽(상업채권단과의 외채협상)이 종료됨.

<표 II -8>

주요 외채통계 내역 변동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외채잔액	25,242	22,619	22,845	23,346	22,915
총외채잔액/GDP	46.3	41.2	40.9	35.3	29.7
중장기외채잔액	23,300	20,900	21,400	22,300	22,138
공적외채	23,300	20,900	21,300	21,700	21,101
민간외채	0	0	100	600	1,037
단기외채잔액	222	199	108	146	134
IMF 차관	1,720	1,520	1,330	988	643

자료: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5.

- 그러나 1998년에 리스케줄링된 원금상환이 재개되면서 D.S.R.은 42%로 상승하였음. 1998년 및 1999년 1~4월의 유가하락으로 알제리 정부는 1999년 5월 IMF의 보상우발차관(Compensatory & Contingency Financing Facility: CCFF) 2억 2,350만 SDR(3억 달러 상당)을 지원받았음.

Ⅱ 경제 및 정치현황

□ 외채구조는 실질적으로 개선추세

- 알제리의 외채구조는 최근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알제리는 외채상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총외채잔액이 2000년 253억 달러에서 2001년에는 226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이런 감소추세는 외채잔액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고유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에 따른 것임.
- 그 결과 D.S.R.이 2001년에 20%로 2000년 수준보다는 높지만 과거 실적에 비해 높지 않음. 알제리 정부는 2001년 말까지 총외채잔액을 GDP의 41%로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2002년에는 연간 채무순증 규모가 2001년의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가해 총외채잔액이 228억 달러에 달함.
- 2004년 말 현재, 총외채잔액은 229억 달러로 추산되며, 7%의 경제성장률 감안할 때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30% 이하로 급락하고, D.S.R.은 11.3%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4% 이상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9.7%에 달함. 다만 알제리 외채의 절반 이상은 미 달러화 표시 채무인데, 미 달러화 대비 알제리 디나르화의 강세로 외채상환비용은 완화될 것임.

<표 II -9>

주요 외채상환 내역 변동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외채상환금액	4,465	4,376	4,167	4,308	4,328
원금 상환	2,813	2,961	2,947	3,219	3,383
이자 지급	1,652	1,415	1,220	1,089	945
D. S. R	18.7	20.1	19.2	15.7	11.3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5.

(2) 국제신인도

□ 주요 신용도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및 평가순위

- OECD: 3등급(2006. 1)
- I.C.R.G: 41/140(2005.12)
- Euromoney: 85/185(2005. 9)
- I.I: 69/173(2005. 9)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출입은행: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국제사회의 자금지원

- 알제리 정부는 IMF로부터 18억 달러의 확대신용차관(Extended Fund Facility: EFF)을 1998년 5월까지 지원받았으며, 아랍통화기금(Arab Monetary Fund) 등 아랍지역 기관들로부터 연화차관(soft credit)³⁾을 받았음.
- AfDB, 아랍무역금융프로그램(ATFP) 등의 다자금융기관들도 국제수지 위기 당시에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의 경상수지 흑자에 따

3) 원래는 금이나 미국 달러와 교환성이 있는 통화, 즉 경화(硬貨)에 의한 차관공여에 대하여 교환성이 없는 통화, 즉 연화(軟貨)로 결제하는 차관을 말함. 최근에는 금리가 낮거나 상환기간이 긴 차관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융자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차관을 통칭하기도 함.

II 경제 및 정치현황

른 실질적인 해외자산을 국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데 소극적인 알제리 정부에 대한 국내 비판이 일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양허적(concessional) 성격의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알제리 정부가 프로젝트 추진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 알제리 무역에서는 양국간(bilateral) 지원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음. 주요 계약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남부유럽 국가들의 금융기관들과는 혼합신용 방식의 거래가 취해지고 있음.

■ 프랑스는 '성장과 발전의 파트너십'이라는 명제 하에 2004년 중반 20억 유로(24억 달러 상당) 제공 계획을 발표하는 등 알제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신용지원(채무 전환, 연화차관, 무역보험 인수 등) 태도를 보임. 스페인도 9억 달러의 신용지원을 발표하였으며, 미국 수출입은행, 이탈리아 SACE 및 영국 ECGD 등의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ies: ECA)도 수출신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표 II-10>

공적개발원조(ODA)^주 지원금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지원금액	138.2	201.0	223.7	328.6	232.2
이국간 지원	86.0	65.7	63.4	122.8	168.8
프랑스	74.3	57.3	63.5	89.6	125.0
다국간 지원	21.0	64.1	106.6	63.0	68.3
EC	11.4	52.5	97.8	50.3	55.2

주 : 순 지원규모 기준.

자료: OEC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Aid Recipients*.

2. 정치·사회현황

가. 정치상황 변천사

□ 수세기 동안 외부세력의 침략을 받아 온 국가

- 17세기에 아랍 국가들의 침략으로 아랍문화(이슬람)를 수용하였고 토착민인 베르베르(Berber) 사회에 도시적인 아랍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였음.
- 아랍문화는 농촌 베르베르 사회에도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오늘날에도 아랍-이슬람적 가치가 정치·사회에 퍼지게 됨.
- 1830년 프랑스 군대가 알제(Algiers) 부근 Sidi Ferruch에 진주한 것은 제2차 침입으로 평가됨. 1세기 이상 프랑스의 식민통치 이후, 1954년 11월 1일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됨. 7년 반 동안 계속된 게릴라 전투로 100만 이상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됨.
- FLN이 주도한 대 프랑스 투쟁 결과, 1962년 7월 5일에 독립을 쟁취하였고, FLN은 알제리의 유일한 법적 정당으로 부상하였음. 알제리의 구 정치계, 군부의 주요 인사들의 대부분은 독립전쟁에 관여한 바 있음.

□ 독립전쟁 이후 정치 불안정 지속

- 독립 당시 FLN 리더였던 벨라(Ahmed Ben Bella)가 사회주의 정책을 추종하는 국가원수로 등장함. 그러나 당시 정부는 국정 경험이 부족하여 경제를 재건하거나 FLN 당내 투쟁을 통제하는 데 역부족이었음.

Ⅱ 경제 및 정치현황

- 1965년까지 지속된 격변사태는 베르베르어 지역인 카빌리아에서의 폭동으로 일단락되었음. 1965년 6월, 당시 국방부장관이었으며 알제리 군대(Armee Nationale Populaire: ANP) 창설자인 부메디엔(Houari Boumedienne) 대령이 벨라 대통령을 축출한 친위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함.
- 당시 쿠데타가 발생한 6월 19일은 2005년 폐지될 때까지 국경일로 경축되었음. 부메디엔 대통령은 원유·가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국고수입을 통하여 농지개혁과 급속한 산업화 등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음.
- 1978년 말에는 부메디엔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벤제디드(Chadli Bendjedid) 대령이 1979년 2월에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음. 벤제디드 정권은 전임 정부가 추진해 온 중앙집권적 사회주의를 폐기하기 시작하였으나, 알제리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및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경제개혁은 예상과는 달리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파악됨. 1984년 1월, 벤제디드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하여 공식적으로 재선됨.
- 계속된 경제긴축 및 정치투쟁은 1988년 10월 알제 등 알제리 도시지역에서의 폭동을 유발하였음. 알제리 혁명에 의해 보장받기로 되어 있는 직업 및 주거에 대한 부족사태를 경험한 청년층과 내부의 갈등으로 얼룩진 FLN 지배층간의 이해가 벌어져 폭동이 격화된 것으로 분석됨.

□ 다당제 정치 출현

- 1988년의 폭동으로 FLN 체제는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하여 선례가

알 제 리

없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즉 1990년 6월 12일에 알제리 최초로 다당제 선거를 실시하게 됨.

- 당시 지방선거에서 좌익계열의 FLN 이외에도 베르베르어 지역인 카빌리아 출신의 신규정당, 민주문화연합(Rassemblement pour la Culture et la Democratie: RCD) 등도 결전을 치름. 그러나 1989년 3월에 이미 결성된 이슬람 정당, 이슬람안보전선(Front Islamique du Salut: FIS)이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알제리 주요 도시의 시의회를 장악함.
- 이후 FIS 급진세력과 정부당국간의 충돌양상이 지속되어 정치체제는 적대적인 분파로 재조직되었는데, 민주적 야당으로 또 다른 베르베르 정당들에 의해 주도된 FLN이 가장 중요한 세력이었음. 의회 선거가 1991년 6월에 계획되었지만 이슬람주의자들이 관련된 폭동사태로 철회되었고, 동년 12월 26일에 투표가 재개되어 1992년 1월 16일에는 제2차 의회가 개원됨.
- 정계 거물들의 체포, 이슬람주의 세력 내 분열에도 불구하고 FIS는 제1차 의회투표에서 231석 중 188석을 장악하게 되어 이슬람적 가치의 반체제적인 알제리 국민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게 되었음. 그러나 정치체제는 흔들렸고 마침내 1992년 1월 11일에는 군부가 선거무효를 요구하면서 벤제디드 대통령을 퇴임시키려고 개입하였음. 이에 따라 FIS는 정치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주요 인사들이 투옥되거나 추방되었고 정계를 떠나기도 하였음.
- 군부 움직임에 따른 결과를 헌법적으로 무효화하기 위하여 군부지원을 받은 정부당국이 민주적인 외형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음. 선거무효

II 경제 및 정치현황

직후 국가고위위원회(Higher Council of State: HCS)가 과도정부 기간 중에 국가현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동 기구는 군부 최고위급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외형적으로는 민간 정치인들을 대표직에 내세웠음.

- 1992년 6월에는 동 위원회의 초대 의장인 부디아프(Mohammed Boudiaf)가 군부 하위급 장교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함. 한 공식조사에 의하면, 동 암살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졌으나 부디아프가 동 위원회 대표로서의 월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위 장교들이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임.
- 동 위원회는 퇴역장성인 제루알(Liamine Zerual)이 국가원수로 재임한 1994년 1월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음. 그는 1995년 선거에서 예상보다 많은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음. 그러나 1997년의 의회 및 지방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져 다양한 군부세력의 정부정책에 대한 개입을 통제할 만한 정치력을 상실하였음.

□ 부테플리카의 대통령 선거 승리

- 제루알 대통령이 군부 지도자들과의 갈등으로 사임하자, 1999년 4월 15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됨. 당시 고위 군부 인사들의 강력한 사조직의 지지를 받은 부테플리카를 제외하고는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 전 여론조사의 적중률은 낮았음.
-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테플리카 후보가 60.9%의 투표율 가운데 거의 3/4의 찬성표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 1995년 대통령 선거에서 75%의 득표율을 기록한 제루알 대통령과 비교될 정도였음.

알 제 리

- 2004년 4월 8일에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1,801만 유권자의 58%인 1,050만이 투표한 가운데 85%를 득표하자, 벤플리스 진영은 실패를 인정함. 당시 벤플리스 후보는 6.4%, 국가개혁운동(Mouvement de la Reforme Nationale: Islah)의 대표인 자발라(Abdallah Djaballah) 후보가 5%를 득표하는 데 그쳤음.

<참고 2>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1937년에 알제리 국경지역 근처인 모로코에서 태어나서 부메디엔(Houari Boumedienne) 대령 소관의 모로코 국경지역의 국립해방군(National Liberation Army)에서 근무하였으며, 1965년 부메디엔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는 쿠데타에도 관여함.

부테플리카가 1963년, 26세의 나이로 외무부장관이 되어 15년의 재직시절 동안 중립세력 운동의 리더로서 알제리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주된 역할을 담당함. 1978년 부메디엔 대통령의 사망으로 부테플리카는 스위스 제네바로 추방되었고, 걸프 지역의 중재 자문관으로도 활동하였음(그는 1999년 알제리로 귀국하기 이전 10년간 스위스에서 대사관 무관 및 대사직을 수행함).

1991년 선거무효에 따른 폭동의 여파로 군부는 1994년 1월 부테플리카에게 대통령직을 제시하였으나,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제루알(Liamine Zeroual)이 그 대신 대통령으로 임명됨. 그러나 1999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데 이어 2004년 4월에는 5년 임기의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대통령 연임에 성공하였음.

Ⅱ 경제 및 정치현황

오랜 기간 외교관으로 활동한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체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부에 의해 지지를 받은 인물임. 그는 1999년 9월 시민화합(Civil Concorde)에 대한 국민투표 발의에서 무장해제한 이슬람 군인들에 대한 제한적인 사면조치를 취하여 절대적인 찬성지지를 받았음.

그는 또한 제2의 대통령 임기 중에 국가화해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공약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5년 9월 29일, 당초 예정 보다 광범위한 대사면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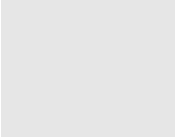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그는 군부의 조정에 따라 움직이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재임기간 중에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음. 제2차 연임기간 중, 그는 자기의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알제리 정치를 지배해 왔던 고위인사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치중하고 있음.

그는 또한 2004~05년 중 G8 정상회담에도 참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개인의 입지를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있음.

나. 정치 안정성

□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정권기반 강화

- 2004년 4월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연임에 성공한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무장군인들의 수뇌부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통하여 정치적인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알 제 리

- 그는 또한 '평화와 국가화해를 위한 헌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5년간의 공공투자 프로그램에 의해 수반된 것으로 실업, 주택부족 및 열악한 인프라 등의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이슈들을 개선하기 위한 550억 달러의 자금 투입계획이 포함됨.
-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제2차 임기 중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04년 6월 군부의 참모총장인 라마리(Mohammed Lamari) 장군의 사임 사태였음. 이는 알제리 정치에서 전권을 가진 중심적인 세력인 군부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함.
- 국방부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무장군인 지역 사령관의 대부분을 교체하고 젊은 신세대 장교들의 승진조치를 취하였음. 신임 참모총장인 가이드(Salah Gaid) 장군은 특별한 정치적 야망이 없는 베테랑 군부장교로서 친 부테플리카 세력임.
- 2005년 8월,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1970년대 이후 알제리 정치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퇴역장성, 벨크에어(Larbi Belkheir)를 모로코 주재 대사로 임명하면서 군부 중심세력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음. 그는 1999년 군부세력에서 친 부테플리카 인사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후 부테플리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자문관의 역할을 수행함.

□ 알제리 헌법과 의회선거

- 1976년에 제정된 이후, 1989년에 개정된 알제리 헌법은 일당 체제를 종식하는 정치적 산물이었으며, 1996년 11월에는 국민투표를 거쳐 1997년에 다시 개정되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적 또는 언어적 기치아래 정치적 활동을 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것으로 선거정치를

II 경제 및 정치현황

통해 보다 안정된 정치환경을 구현하는 데 있음. 또한, 국가체제이행위원회(Conseil Nationale de Transition: CNT)를 양원제 의회로 대체하는 것임.

- 이에 따라 1997년 6월, 하원인 국민대중회(Assemblée Populaire Nationale: APN)의 의원 389명이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동년 12월 25일에는 신설된 상원인 국가위원회(Conseil de la Nation: CN)의 의원 144명 중 2/3에 해당하는 96명이 지방관료들에 의해 경선으로 선출되었음.
- 1997년 12월 선거에 의해 당선된 96명의 상원의원은 민주국가회(Rassemblement National Democratique: RND) 80석, FLN 10석, FFS 4석,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Mouvement de la Société pour la Paix: MSP, 구 Hamas) 2석으로 구성됨. 상원의원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48석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
- 2002년 5월, 제2차 알제리 하원 의회선거에서는 FLN이 전체 의석 중 199석을 차지하는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음. 반면, RND는 종전의 155석에서 48석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Islah와 MSP는 각각 43석과 38석을 차지하였음.
- 한편, 2003년 12월에 실시된 상원의원의 절반을 선출하는 경선에서 FLN 22석, RND 17석, MSP 4석, Islah 2석, 무소속 1석으로 결정되었으며, 차기 의회선거는 2007년에 개최될 예정임.
- 알제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하여 재임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헌법 개정이 없다면, 현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2009년에는 퇴임해야 함을 의미함.

알 제 리

- 1997년 헌법 개정 이후, 의회 사법위원회는 정치적 조직에 대한 신규 규정을 위반한 30개의 정당을 해체하였음. 이 중에는 연대진 전민주주의운동(Ettahadi), 알제리재건을 위한 민주운동(Democratic Movement for Algerian Renewal), 민주세력연합(Union of Democratic Forces)이 포함됨.

- 알제리 최고법원은 1997년 7월에 알제리민주운동(Movement for Democracy in Algeria)을 해체하는 의회 사법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였음.

□ 2003년 이후의 주요 내각변화

- 2003년 5월,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벤플리스 총리를 교체하고 RND 당대표인 우야이야(Ahmed Ouyahia)를 임명하였음. 2004년 4월 대통령 선거 이후 우야이야 총리는 재임용되었으며, 2005년 5월에는 우야이야 총리의 주도하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었음.

- 우야이야 총리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온 베나쉴누(Abdelatif Benachenou) 재무부장관이 경질되고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자문관이었던 메텔시(Mourad Medelci) 재가용
-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측근인 테마르(Abdelhamid Temmar)가 투자부장관으로 복귀
- FLN 당대표인 벨크아텡(Abdelaziz Belkhadem) 외무부장관이 전 헌법재판소 소장, 베자위(Mohammed Bedjaoui)로 교체

다. 사회 안정성

□ 인구증가율 둔화

- 알제리의 인구증가율이 1970~80년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둔화되고 추세를 나타냄. IMF 통계자료에 의하면, 알제리 총 인구수는 1998년 2,951만 명, 2000년 3,046만 명, 2004년 3,236만 명(전년 대비 1.5% 증가)으로 집계됨.
- 1987년 인구센서스 당시 인구 총수는 2,302만 명으로 과거 10년간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2.12%로 10년 이전의 3.06%보다는 둔화되어 장기적으로 인구증가율 억제현상을 보이고 있음.
- IMF에 의하면, 1999~2003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53%로 1994~98년의 2.06% 보다 낮은 수준이며, 세계은행도 알제리의 평균 수명(life expectancy)이 70세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발표함.
- 알제리는 인구구성의 전환단계에 있으며, UNDP에 따르면 2002년도 알제리 여성의 출산율은 2.5명인 것으로 파악됨.

<표 II-11>

인구규모 및 인구증가율 추이

단위 : 만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인구규모	3,046	3,091	3,138	3,187	3,236
연간 인구증가율	1.43	1.48	1.52	1.56	1.54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5.

알 제 리

□ 인종구성

- 북부 사하라 지역의 므잡(Mزاب) 지방의 Ghardaia 등 여러 지역에서 이슬람 모자비(Mozabi)인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알제리 사람들은 이슬람 수니파 의식을 따름.
- 베르베르어를 구사하는 또 다른 그룹인 카빌레(Kabyles)인은 북부지역 알제의 동부 산악지대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적으로는 프랑스어의 반 이슬람 언론계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 이밖에도 Aures 산악지대의 Chaouia, Cherchell 주변의 Chenoua, 중앙 사하라 지역의 Touareg도 있음.
- 알제리 정부의 지속적인 아랍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20%는 아직도 베르베르어를 구사하며, 2001년 중 카빌리아 지역에서의 폭동으로 알제리 정부는 카빌레인의 언어인 타마지트(Tamazight)어를 2002년 4월,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헌법상 하나의 국어(a “national” language)로 선언하였음.

□ 교육

- 독립 이후, 학교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은 각각 99%, 60%로 추산됨.
- 문맹률은 1995년의 38%에서 2002년에는 31%로 저하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세계은행 자료).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입비용이 정부 경상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4) 모자비인은 이슬람 수니파의 Iba di 계열의 분파로서 베르베르어를 구사하는 소규모 그룹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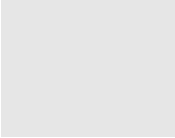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Ⅱ 경제 및 정치현황

□ 보건

- 알제리의 보건시스템은 독립 이후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데, 2001년 기준으로 GDP 대비 공공 보건지출 규모는 3.1%로 이집트의 1.9%보다 높은 수준임. EIU의 추정에 따르면, 1999년 말까지 54,000개 병상을 갖춘 병원이 261개 설립되었음. 의사 숫자는 2001년 기준으로 10만 명 당 85명(이집트: 218명)임.
- 세계은행에 따르면, 유아사망률은 1980년에는 1,000명 당 98명에서 2002년에는 38명으로 줄어들었으나, 빈곤관련 질병은 최근에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UN은 2003년 말 기준으로 15~49세 어른의 0.1%(이집트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가 HIV/AIDS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생활수준 및 실업현황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4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 2,275달러 수준임. 이 같은 수치는 2000년의 1,580달러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특히, 2003~04년 원유·가스 산업의 생산증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알제리는 1990년대 중반 알제리 디나르화의 가치하락(특히, 1994년에는 40% 하락)으로 상당수의 중산층이 하위 빈곤계층으로 전락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알제리 디나르화가 미 달러화 대비 명목기준으로 거의 4% 정도 강세를 나타냄.
- 알제리는 시장경제 체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은 가솔린의 국내가격 상승과 빵 등 생필품에 대한 정부보조 철



알 제 리

폐 등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 체계를 향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알제리의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은 빈곤층의 확대로 지난 10년간 확대되어 왔음. 1990년대 중 노동인구증가율은 평균 3.4%로 증가하였고, 노동시장에서 연평균 25만 명의 신규 근로자가 유입되었음.
- 1996년의 유가충격으로 실업률이 급상승하여 1990년의 19.8%에서 2001년에는 27.3%에 달하였음. 그러나 지난 4년 간 알제리 정부의 공공고용 확대조치 및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으로 실업률은 2003년 9월 23.7%, 2004년 9월 17.7%(노동력: 947만 명)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실업은 주로 청년층(실업자의 73%는 30세 이하), 도시 거주자 및 여성에게 타격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1990년대에 급속도로 성장한 비공식적 부문(지하산업 등 GDP의 35% 차지)에서 실업자를 유입하고 있음.
- 알제리 노동력의 35%는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전통적인 도파수단인 이민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으로 가는 비자승인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현 불가능함. 실업자 수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동집약적인 비 원유·가스 산업 개발이 필요함.

라. 대외관계

□ 대외 이미지 점진적 개선

II 경제 및 정치현황

- 부테플리카 대통령 취임 이후, 알제리는 1990년대 초 위기상황에서 손상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당시 서방 관료들은 알제리 정치계 인사와 만나기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였음.
- 1999년 부테플리카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서방 선진국들은 알제리의 경제개혁을 환영하였는데, 1995년과 1997년의 선거는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판을 받은 최초의 사례임.
- 1960~70년 알제리 전성시대에 외무부장관을 지낸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구 OAU)을 통하여 아프리카 현안에 관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9·11 테러 협조로 대미관계 개선

- 2001년 9월, 미국의 대 이라크 공습이전에 이미 미국-알제리간 관계는 강화되고 있었음. 당시 미국 FBI 국장이던 루이스 프리(Louis Freeh)가 2001년 3월 알제를 방문하여 알 카에다(al-Qaida) 이슬람 주의자 네트워크의 리더인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에 대항하는 전투에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음.
- 또한, 미국과 알제리 해군은 지중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개시하였으며, NATO 및 미군 고위 장교들의 방문이 잇달아 이뤄졌음.
-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한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사면조치가 미국에서도 환영을 받았으며, 2001년 7월 미국 백악관에서 알제리 국가원수로는 16년 만에 방문하여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환대를 받았음.
- 당시 방미 중이던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투자기본협정

알 제 리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을 체결하였고,⁵⁾ 미국은 알제리에 대하여 경제관계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

- 알제리와 미국간 관계개선은 9·11 테러 이후에 더욱 공고히 되었음. 알제리 정부는 테러국에 대한 비난을 서슴치 않았으며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음.
- 알제리 정부체제로서는 9·11 테러가 국제적인 시각에서 1991~92년 중 선거무효화 사건, 이슬람주의자 반대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 등 과거 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였음. 알제리 정부는 미국보다 앞서 외부세력의 도움 없이 이슬람 테러에 대하여 투쟁하였던 사실을 세계에 상기시켜 주었음.
- 2002년 12월, 윌리엄 번(William Burns)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알제를 방문하자, 당시 언론들은 알제리가 미 군수장비(품목 미정) 구매협약 체결이 최종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1년이 지난 후 콜린 파월(Colin Powell) 미국무부 대변인은 알제리를 방문하여 대 테러 투쟁에 대한 추가적인 회담을 가지면서, 알제리에 대하여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옹호의 필요성을 언급함.
-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2004년 6월, 미국 Sea Island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 초대되었으며, 2005년 영국 Gleneagles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도 참석하였음.
- 과거 10년간 이슬람 폭력 반대태도에도 불구하고 서방 선진국은 이

5) 미국은 모로코와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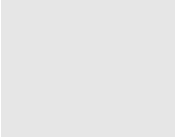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II 경제 및 정치현황

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암울한 인권기록 때문에 대 테러 전쟁을 위해 소요되는 군사장비를 알제리에 판매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알제리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라디오, 차량, 국경지대 안전을 위한 소형 정찰기, 수송기(C-130) 부품에 제한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알제리 정부가 요구하는 무기류를 알제리에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정보도 입수되고 있음.
- 미국은 계속해서 대 테러 전쟁에서 알제리의 협력을 환영하고 있으며, 인권조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알제리, 나아가 북아프리카 국경지대 및 사하라 지역에서도 알제리 정부체제가 호전적인 이슬람세력의 확산을 억제하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프랑스, 영국 및 러시아도 알제리에서의 무기거래를 계획하고 있으나, 새로운 무기구매 과정에서 알제리 군사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가 지연됨에 따라 성사되지 않고 있음.

□ 대 프랑스 관계 긴밀

- 한때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였던 알제리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개인적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음.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알제리 이민자가 100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양국간 교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보다 밀접한 관계임.
- 1990년대 초 프랑스는 알제리 정부에 대해 적어도 암묵적 지원을 하였으나, 알제리 폭도들이 프랑스 시민들을 가해함에 따라 양국간의



알 제 리

관계는 불편해짐. 1995년 프랑스 폭탄테러에 이어 1996년 알제리에
서 7명의 프랑스 수도사 살해 등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의 노력으로 알제리 군부 체제가 인권
기록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모면하였고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지원도 추진되었음.
- 부테플리카 대통령도 프랑스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진 알제리 정계
인물들의 지원으로 양국간의 공식관계는 급진전되었음. 특히, 부테
플리카 대통령의 평화적 제스처는 서방 선진국의 알제리 정치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는 2000년 여름 파리
에서 대단한 환영을 받았음.
- 2003년 3월에는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의 알
제리 방문이 성사되었는데, 이는 알제리가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
립한 이래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알제리 방문이었음.
- 2004년 4월 14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알제리 방문기간 중
알제에서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재임을 축하함. 이후 프랑스 관계 장
관들의 후속 방문이 줄을 이었음.
- 2004년 6월 미셸 바니에(Michel Barnier) 프랑스 외무부장관은
2005년에 양국간 '우정협정' (friendship treaty) 체결을 논의하기
위하여 알제리를 방문하였음. 동년 7월 말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재무부장관이 수출신용, 재정지원 및 채무주식 전
환 등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20억 유로(24억 달러 상당) 제공에 서명
하였음.

II 경제 및 정치현황

- 그러나 2005년 중반,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프랑스 전 식민지 거주민의 지위를 취급하는 프랑스 법률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양국간의 관계가 일시 동요되었음.

마. 지역경제협력기구

□ 석유수출국기구(OPEC)

-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1960년대 결성되어 회원국의 석유정책 조정으로 주요 석유수출국기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 전체의 유가조절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됨. 현재 회원국으로는 알제리,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 베네수엘라로 총 11개국임.
- OPEC 회원국은 세계 전체의 확인 매장량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의 2/3는 중동지역에 위치함. 또한 세계 전체의 원유 공급 물량의 40%(1974년 55%)를 차지함. 1980년대 중반 원유의 과잉공급 및 OPEC 회원국간의 적절한 대응부족으로 유가 시스템은 붕괴되어 배럴 당 국제유가는 1973년 2.5달러, 1980년 36달러에서 1986년에는 8달러 수준으로 급락함.
- 비 OPEC 회원국과의 원유생산 감축에 대한 협력 실패, 1996년 12월 이라크의 원유 생산시장 회복 등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확대되었음. 이에 1997년 11월, OPEC는 원유생산 한도를 10% 늘려 일일 2,750만 배럴로 증대하는 데 합의함.
- 아시아 외환·금융위기로 유가는 30% 하락하여 1998년에는 배럴당

알 제 리

9달러 수준으로 다시 급락함. 2003~05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라 유류 수요가 증대하면서 2005년 9월에는 국제유가가 배럴 당 70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알제리는 또한 이란,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15개국으로 구성된 가스 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세계 전체 가스수출의 53% 차지)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원유·가스 산업 발전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밖에도, 알제리는 아랍 석유생산국(10개국)과 비 OPEC 회원국(바레인, 이집트 및 시리아 등 3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에 가입함. 1968년에 설립되어 회원국간 석유정책을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둬, OAPEC도 기술 훈련,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시장 분석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국에 대하여 정보제공의 기능도 담당함.

□ 아랍국가연맹(LAS)

- 아랍연맹으로 잘 알려진,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은 1945년에 아랍국가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전 아랍국가의 상품에 대한 정책조정을 위하여 설립됨. 1993년 코모로(Comoros)의 가입으로 회원국은 22개국이며 팔레스타인도 공식 회원국임. 동 연맹은 UN 총회에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본부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음.
- 아랍연맹은 수 많은 지역적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구속되는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의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특정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방식에 의해 결정됨.

II 경제 및 정치현황

- 1990년대 하반기 이후 미국과 영국의 대 이라크 정책은 아랍세계에서 중요한 긴장요인이었음. 당시 이라크에 대한 광범위한 봉쇄에 대한 쿠웨이트의 견고한 지지태도와는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서방 선진국과의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한 국가들도 있었음.
- 2002년 4월 베이루트 아랍연맹 정상회의에서는 UN 제재에 대한 철회를 합의하였으나, 미국 주도하의 이라크 체제 전복을 위한 전쟁이 아랍 내에서 예상된 긴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동 연맹은 2005년 1월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이라크 신임정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됨.
- 아랍연맹에서 이집트의 주도적인 역할이 2005년 3월 알제리의 주최로 열린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 이집트와 알제리간의 일부 마찰을 가져온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됨.

□ 아랍통화기금(AMF)

- 아랍통화기금은 1977년 아부다비에 설립되어 현재 회원국은 20개국임. 아랍경제의 통합을 겨냥하여 설립되었으나, AMF 기금을 통해 아랍 국가간 무역거래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특히 회원국에 대한 국제수지 위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또한, IMF의 특별인출권(SDRs)과 유사한 계정단위로 아랍회계디나르화(AAD) 사용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랍권 단일통화 구성을 추진하는 데도 AMF의 또 다른 설립목적이 있음. AMF는 아랍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채권 평가기관의 설립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종합전망

□ 정치전망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가별 유력 정치·경제 전문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⁶⁾ 의 2006년 1월 국별 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당분간 알제리의 정치상황은 대체적으로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이슬람 과격단체에 대한 일반 대사면 조치를 취한 부테플리카 대통령 정권은 시민전쟁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전략을 취하면서 문민통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수적 과격세력의 투쟁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치안유지를 위한 단호한 대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슬람 과격단체에 대한 사면조치가 가져올 파장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으나, 정부가 일부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면조치를 허용한 결과라는 데 국민들의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현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임기 내 정권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전망

- EIU는 알제리 경제정책 기조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예를 들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10% 대를 상회할 정도로 재정수지 적자는 아직 건전한 수준이라는 것임.

6)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그룹의 자회사로 특정국가의 정치·경제동향 및 산업조사 등에 관한 국별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임.

Ⅱ 경제 및 정치현황

- 또한, 경상수지 흑자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18%에 근접할 정도 경상수지에 대한 전망도 매우 고무적이며, 소비자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알제리 정부는 경제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통신, 전력 및 용수 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원유·가스 산업이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타 산업에 대한 투자도 알제리 경제발전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표 II-12>

국제 원자재 가격전망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석유(브렌트산, 달러/배럴)	38.5	55.0	55.0	46.8
금(달러/트로이온스)	409	445	460	430
식료품/사료/음료(달러기준 변동률)	8.6	-1.0	-3.6	-0.7
공업 원자재(달러기준 변동률)	21.0	9.1	-0.2	-10.7

자료: EIU, Country Report, January 2006.

Ⅲ. 주요 산업

<표 Ⅲ-1>

산업별 고용인구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

	1999	2000	2001	2002	2003
노동력	8,583	8,850	8,568	8,762	9,470
고용인구	4,898	4,977	6,229	6,684	7,798
농업	1,185	1,185	1,312	1,412	1,617
제조업	493	497	3,870	3,792	3,870
건설 및 공공사업	743	781	650	800	968
상업 및 서비스업	2,477	2,514	3,406	3,668	4,153
실업인구	2,510	2,610	2,339	2,078	1,672
(노동력 대비 %)	(29.2)	(29.5)	(27.3)	(23.7)	(17.7)

자료: EIU, Country Profile, September 2005.

1. 농림수산업

□ 농업 생산구조

- 알제리의 면적은 238만 km²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2의 대국이나, 경작가능 면적은 820만 ha(총면적의 3.4% 수준)에 불과함. 공식통계에 따르면, 잠재 농지의 18.5%가 농작물 재배지역이며, 도시개발로 농지 잠식이 우려됨.
- 알제리의 식품 수입의존도는 45%이고, 경작가능 면적의 1/3은 아직도 공공소유이지만 민간부문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2001년 7월 승인된 국가농업개발계획(PNDA)으로 농업생산이 증대되어 왔으며,

Ⅲ 주요 산업

PNDA는 향상된 관개기술 및 농작물 재배기법으로 수확증대를 위한 공적투자를 주도해 왔음.

-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01년 농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를 달성하였으며, 2002년에 기후불순으로 농업생산이 타격을 받았으나 2003년에는 7% 이상의 성장을 나타내면서 대풍작을 기록함.
- 농업부문은 알제리 총고용의 25%를 차지하며 GDP의 10%(1990년 불변가격 기준)를 기여함. 1994년 이후, 알제리 정부는 기존의 ‘자급 자족’ 정책에서 점차 탈피하여 농업생산 개방을 유도함.
- 세계은행에 따르면 경작가능 면적의 60%가 1987년에는 국유지였으나, 현재는 개인 통제 하에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경작지도 개인 또는 집단농장에 배분된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대규모 농가에게 아직은 영농 자금지원이 쉽지 않은 실정임.
- 또한, IMF도 알제리 정부에 대하여 효율적인 농지 등록제도 확립과 더불어 완전하고 정당한 농지 소유권 할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세계은행이 농지 임차시스템의 지속적인 개혁을 전제로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에 의해 완전한 사유 영농체제로 이전할 것을 약속함.

□ 주요 농작물

- 알제리의 주요 농작물은 곡물, 특히 밀과 보리, 토마토와 콩임. 콩 등 곡물 수확은 최근 강우량 패턴에 따라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 왔으나, 토마토의 생산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함. 알제리는 프랑스, 캐나다 및 미국으로부터 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음.

알 제 리

- 지난 10년간 대추야자 열매가 비 원유·가스 수출실적에서 최고치를 기록함. 특히 프랑스, 러시아, 세네갈, 벨기에 등지에서 알제리 대추야자의 인기가 높음. 국가대추야자공사(Office National de Dates)는 주로 사하라 오아시스 지역에 7만 2천 ha에 걸쳐 750만 야자수를 재배하고 있음.
- 정부는 200개의 가공공장 추가 설립, 10만 ha의 올리브 과수원 추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리브유 생산이 연간 평균 15만 hl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동 계획이 완료되면, 총 26만 2천 ha의 올리브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가축

- 가축은 고지대 평원과 남부지역에서 중요한 산업인데, 정부는 가축관리(목장)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소유패턴은 변화하지 않은 상태임. 가축의 50%는 개인 가축농가에 의해 소유되며, 알제리 면적의 14%는 목초지로 사용되고 있음.
- UN 식량농업기구(FAO)는 육류생산이 55만 1,500톤(염소 320만 톤, 소 160만 톤, 양 1,730만 톤)으로 전년의 53만 4,000톤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수산업

- 지중해 연안의 1,200 km는 비교적 미개발 해역임. 2001년 어획량은 10만 300톤이었으며, 이는 잠재 어획량, 17만 톤에 훨씬 못 미침. 어선은 소규모의 가내 수준으로 열악함.

Ⅲ 주요 산업

- 정부는 수산업 소득을 올리기 위한 여러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항구시설을 현대화하고, 1994년에는 독립 이후 최초로 외국 선박의 알제리 해역에서의 조업권을 통상법에서 규정하여 허용함.

□ 임업

- 침식 및 불모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1975년 알제리 정부는 사하라 지역의 북부 연안을 따라 1,500 km의 수목지대를 조성하였음. 고원지대의 기후여건이 많은 수목에 영향을 미쳤지만, 동 프로젝트는 지속되었음.
- 알제리의 주요 재배수목인 코르크가 화재로 인하여 타격을 입었지만, 23만 ha에 걸쳐 코르크나무가 서식하고 있음.

2. 광업

□ 금·다이아몬드 광산 위주 생산

- 남동부 지역의 호가르(Hoggar) 지방에 금 광산, 말리(Mali) 국경지대 부근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각각 위치하고 있음. 이밖에도 철광석, 황철광, 인산염, 납, 아연, 수은, 중정석, 안티몬의 광물이 생산되고 있음.
- 공식통계에 따르면, 비 에너지 광업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며 생산 능력 활용도는 5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2002년, 철광석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고 인산염 생산량도 1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이는 낙후되고 부족한 기자재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에 주로 기인함.

알 제 리

- 알제리 정부당국은 캐나다의 Breakwater Resources of Canada와 광산 개발이권의 90%를 요구하는 협상 결렬로 Oued Amizour 아연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입찰을 2001년에 공고하였음. 동사는 회담결렬에 대한 알제리의 불투명한 법적 체계를 언급하였고, 현재 입찰 진행은 중단된 상태임.
- 2001년 8월, 알제리 에너지·광업부는 외국인 운영업체에 대한 광업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 광업법을 발효하였음. 동 광업법은 공적 및 민간 운영업체간 차별을 철폐하고, 인프라 및 설비에 대한 리베이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됨. 또한 동 조치는 투자 및 이윤 송금권도 보장하며, 최대 탐사기간 5년에 채굴허용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하고 있음.

<표 Ⅲ-2>

광물·금속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2000	2001	2002	2003	2004
철 광 석	1,609	1,271	962	1,378	1,414
인 산 염	796	901	740	905	784
수 은	6	9	9	5	3

주: 수은은 34kg 단위의 컨테이너 1,000개 기준.

자료: EIU, Country Profile, September 2005.

3. 에너지산업

□ 원유 생산량

- 알제리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공식적으로 110억 배럴(아프리카 3위 수준)로 추산됨. 켈릴(Chakib Khelil) 에너지부 장관은 원유 생산능

Ⅲ 주요 산업

력은 일일 125만 배럴이라고 공시함. 2004년 중반 세계 유류시장의 과열을 진정하기 위하여 OPEC 회원국들이 공급물량을 증대하면서 실제 생산량이 동 배럴 수준으로 근접한 바 있음(2004년 8월의 알제리 OPEC 쿼터는 일일 83만 배럴임).

- 알제리는 일일 510,865배럴을 처리하는 총 4개의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정유시설은 알제리 정유제품 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음. 2005년 3월 Sonatrach는 Skikda 지역에 일일 10만 배럴의 정유능력을 가진 정유시설 건설을 위해 CNPC와 3억 9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함.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알제리 원유 생산량이 2004년 1/4분기 평균 일일 114만 배럴에서 2005년 3/1분기 중에는 136만 배럴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표 Ⅲ-3> 원유 · 가스 생산량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원 유 생 산 량	58.6	57.2	61.5	69.9	74.3
정 유 생 산 량	19.6	21.0	20.4	20.8	18.4
가 스 생 산 량	1,395	1,407	1,400	1,376	1,443
LPG 생 산 량	7.4	8.8	8.7	8.5	8.5
LNG 생 산 량	451	430	448	476	407

주: 원유, 정유 및 LPG는 백만톤, 가스 및 LNG는 억 m³.

자료: EIU, Country Profile. 2005.

□ 천연가스 생산량

- 천연가스에 대한 상업적 생산은 196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천연가스

알 제 리

확인매장량은 1조 7,500만 ft^3 이나 실제매장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4조 5천억 ft^3 (세계 8위 수준)로 추정됨.

- 2004년 중 연초 폭발사고로 Arzew LNG 시설의 생산량을 만회하려고 Sonatrach의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리면서 천연가스 수출은 전년 대비 35억 m^3 증가한 353억 m^3 , LNG 수출은 전년 보다 70억 m^3 감소한 407억 m^3 를 기록함.
- 건성가스⁷⁾ 생산량의 25%는 알제 남부 500 km 떨어진 Hassi R' Mel 유전에서 생산되며, 이밖에도 Rhourde Nouss, Alrar, Rhourde El Chouff, Rhourde El Adra, Gassi Touil, Ilizi 해역 등에서도 건성가스가 생산됨.
- 알제리는 연간 120억 m^3 의 가스를 소비하며, 이중 2/3는 전력생산에 투입됨. 알제리 정부는 전력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시작함에 따라 10년 후에는 가스 생산량이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알제리 가스는 유럽지역 가스 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2002년 중 연간 650억 m^3 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향후에는 신규 가스전 개발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로 가스 생산·수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가스 송유관

- Arzew 및 Skikda에 위치한 4개의 플랜트는 모두 Sonatrach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출용 가스를 액화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이중 Skikda 플랜트는 2004년 1월의 폭발사고로 6개월 후에 생산이

7) 탄화수소를 함유하지 않은 천연가스(메탄, 에탄 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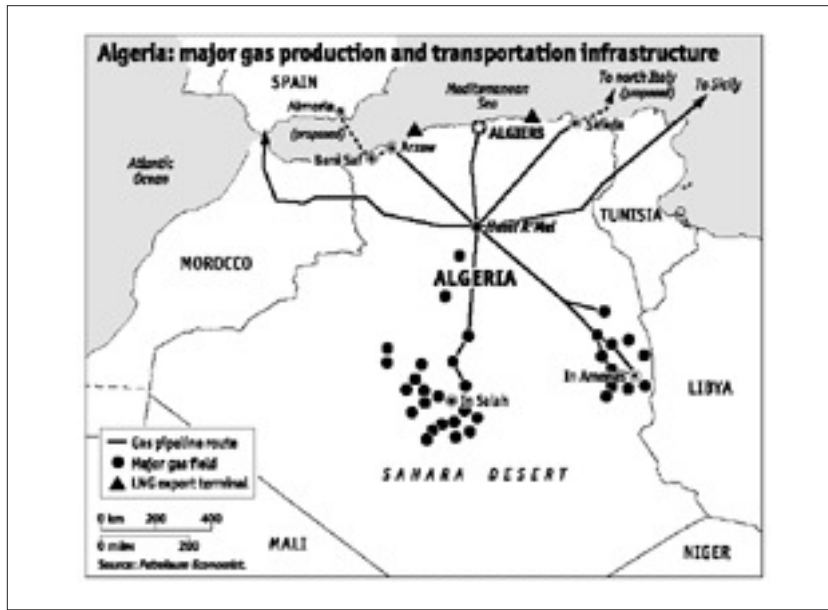
Ⅲ 주요 산업

제한적으로 재개되었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

- 알제리에서 송유관을 통한 천연가스의 수출은 지중해의 양방향에서 모두 중요함. 알제리 가스가 튀니지를 경유하여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지중해 연결 송유관은 연간 240억 m³를 처리하는 규모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음. 동 시설은 연간 270억 m³를 처리하는 규모로 증설되고 있음.
- 또 다른 송유관으로는 알제리에서 모로코를 경유하여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Maghreb-Europe 라인으로 현재 처리능력은 연간 72억 m³임.
- 추가적으로 알제리에서 스페인으로 직접 들어가는 연간 80억 m³를 처리하는 능력의 Medgaz 송유관이 2007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2004년 스페인 전력업체인 Iberdrola가 2007년 초 Medgaz 송유관을 통해 들어가는 가스의 연간 10억 m³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Sonatrach와 체결함.
- Sonatrach는 또한 사르디니아를 거쳐 북부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가스 수출 송유관 건설에 이탈리아와 독일 협력업체와의 Galsi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2008년부터 송유관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
- LPG는 알제리 다양화 전략의 또 다른 분야인데, 1983년에는 Arzew 부근에 위치한 Bethioua에 LPG 플랜트가 연간 500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시설로 가동되었음. 1,000 km의 신규 송유관이 건설되었고, Alrar와 Hassi Messaoud 지역의 분리된 시설이 확대되는 공사도 추진되었음. Arzew의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LPG 플랜트 건설에 일본 업체와의 설비공급 계약 추진을 위한 신용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됨.

알 제 리

<그림 Ⅲ-1> 알제리의 주요 가스 생산 및 유통시설 경로



자료: EIU, Country Profile, September 2005.

□ 원유 · 가스 산업

- 원유 · 가스 산업은 알제리 경제를 좌우할 정도의 최대 산업으로 2003년 기준으로 GDP의 40%, 총 상품수출의 97%, 재정수입의 69%를 차지함. 원유는 1970년대 알제리 경제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가스 산업의 수출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1958년 사하라 지역에서 원유생산이 대규모로 시작되어 1980년에는 원유수출이 알제리 전체의 원유 · 가스 생산의 73%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원유 · 가스 산업의 유통부문 영업활동이 증가하면서 원유 수출 비중은 1985년 48%, 1996년 21.4%로 침체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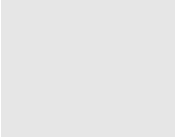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Ⅲ 주요 산업

- 1991년 이후 국제적인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기존 유전에서 영업 활동이나 인수도 허용되었음. 알제리 원유·가스 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외국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알제리 원유·가스 탐사 및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켈릴 에너지부 장관은 2005년 일일 150만 배럴, 2010년 일일 2백만 배럴의 원유생산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음.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중 원유생산량은 일일 135만 배럴인 것으로 조사됨.
- 2004년에는 국영기업인 Sonatrach⁸⁾가 전체 원유생산 7,430만 톤의 55.5%, 전체 가스생산 1,443억 m³의 86%를 차지함. 2005년에는 Sonatrach의 생산비중이 원유의 81%, 가스의 91.5%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원유·가스 산업 생산계획 지속

- 2003년 4월, 스페인 기업 CEPESA와 미국 기업인 Anadarko가 Hassi Berkine 해역에 위치한 Ourhoud 유전에서 일일 23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기록함. Anadarko는 일일 30만 배럴을 생산하는 Berkine 유전에 대한 운영이권을 보유하고 있음.
- 미국 기업인 Burlington Resources는 2003년에 Block 405a의 Menzel Lejmat North(MLN) 유전에서 원유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2004년에 일일 4만 배럴의 생산이 기대되었음. 또한, 호주기업 BHP

8)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해안지역에 수송하기 위해 1964년에 설립되었고 1971년에는 국유화되었음.



알 제 리

Billton은 2004년 말 Rhourde Oulad Djemma(ROD) 벤처의 원유 생산에 참여하여 2005년 상반기에 일일 7만 5천 배럴의 생산이 예상되었으며, 동사의 개발이권은 36%를 확보함.

□ 성공적인 입찰거래 성사

- 정부와 Sonatrach는 2003년 말 이후 원유 탐사 및 생산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을 추진하였는데, 동년 12월 제4차 라이선스 라운드에서 12개 중 5개 블록(blocks)이 낙찰되었음. 중국 국영석유공사(CNPC) 2개, Petro-Canada, 유럽 콘소시엄인 Total/Cepsa, Repsol/RWE-Dea/Edison가 각각 1개로 결정됨.
- 2004년 7월, 에너지·광업부와 Sonatrach는 제5차 라이선스 라운드에서 10개 중 8개 블록 가운데 중국계 기업인 CNPC 1개, Sinopec 2개이며, 나머지는 Amerada Hess, Statoil, Petroceltic, Repsol/Gas Natural, BHP Billiton/Woodside Petrole이 각각 1개의 블록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됨.
- 2005년 3월에 시행된 제6차 라이선스 라운드에서는 BP가 3개의 블록(Illizi 해역 2개, Hassi R' Mel 가스전 1개)을 확보하였으며, BHP Billiton과 아랍에미리트의 Gulf Keystone도 2개의 블록 참여가 확정됨.

Ⅲ 주요 산업

4. 제조업

□ 제조업 생산실적 저조

<표 Ⅲ-4>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1989=100)

	2000	2001	2002	2003	2004
용수 및 에너지	171.3	179.8	187.7	200.1	211.7
원유 · 가스	128.6	128.5	133.8	138.0	139.5
광업 및 채석업	73.2	77.3	82.0	82.5	81.6
기계 및 전기제품	57.3	62.8	67.2	73.2	73.6
건축 자재	94.4	98.6	106.9	99.3	108.1
화학 제품	96.5	94.3	88.8	80.0	78.6
식품 가공업	85.6	74.9	60.5	50.0	43.3
직물 제품	33.8	28.6	29.6	26.3	23.0
가죽 제품	15.9	16.1	13.0	12.1	13.5
목재 및 제지	35.0	31.0	31.4	29.6	28.4

자료: EIU, Country Profile, September 2005.

- 알제리에서는 1970년대부터 중공업 거대기업의 중앙집권적이고 비효율적인 체계가 형성된 점이 특징임. 최근 국영기업의 생산실적은 생산능력의 평균 40%로 침체된 반면, 채무 및 과잉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2001~02년에 차츰 낮아졌고 2003년에는 3.3%나 하락함.
- GDP 대비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1993년의 12% 수준에서 2002년에는 9%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전체 공업생산의 75%를 차지하는 국영기업에 의해 생산이 주도되었기 때문임. 알제리 최대 비 원유 · 가스

알 제 리

기업인 Sider는 El-Hadjar 제철소의 주요 운영업체인데, 생산능력은 연간 220만 톤이지만 생산실적은 1995년의 82만 6,000톤으로 감소하여 13개 용광로를 폐쇄하였음.

- El-Hadjar의 운영은 1999년에 Alfasid(알제리내 성공적인 사유화의 모델)로 개편되었고, 2001년에는 LNM 그룹의 자회사인 인도기업 Ispat International이 Alfasid 지분의 70%를 취득하였으며, 국영 철광석·인산염 공사인 Ferphosin의 자회사를 4억 달러에 인수하였음.
- 국영 트럭·버스 제조업체인 SNVI는 적자상태로 생산증대를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으며, 2001년 SNVI의 공장기동률이 40%에 불과하였고 제조설비의 현대화에 적어도 2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5. 건설업

□ 주택건축 집중

- 중기적으로 주택건설은 인프라의 중심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됨. 알제리는 도시지역의 주택부족 사태로 인하여 심지어 공공사회 임차주택이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알제리는 주택 단위 당 세계 최고 수준의 거주비율을 기록하는 국가임.
- 현재의 주택부족을 흡수하고 미래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17만 5,000호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옴. 여기에는 심하게 노후화된 주택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보수건수가 반영되지는 않았음.

Ⅲ 주요 산업

- 건설시장의 미래성장에 대한 전망은 중동 최대의 시멘트 생산업체인 이집트의 Orascom Construction Industries가 알제리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 여부에 달려 있음. 동사는 2004년 3월에 알제리 현지 파트너와 알제리 시멘트 회사(ACC)를 결성하고 알제 남서쪽 240 km에 위치한 M' Sila에서 생산을 개시함. 제2차 생산라인은 2005년에 개시되고, 각 라인은 연간 220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동 프로젝트는 미국 Citibank의 지원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차입금으로 추진됨.
- 2005년 초 Orascom은 알제리 북서지역에 있는 Arzew 부근의 1억 3,800만 달러의 시멘트 플랜트에서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동사는 알제리 건설 분야에서 최초로 인테리어 마감용으로 활용되는 백(白) 시멘트를 연간 55만 톤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 2001년 이후 알제리 정부는 12개의 국영 소유 시멘트 플랜트를 매각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별 다른 진전이 없었음. 이들 플랜트의 총 생산능력은 연간 1,100만 톤이나 유지관리 및 내부수리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 부족으로 연간 실제 생산능력은 800만 톤에 불과함.

6. 교통 · 통신업

□ 철도

- 2001년, 알제리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영업하는 철도 네트워크 추진 법안을 의회 경제분과 위원회에 제출하였음. 동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차량, 상업적 관리, 관리, 운영 및 안전 시스템을 민간부문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리스하는 계약을 취하게 됨.

알 제 리

- 국영철도공사인 SNTF는 4,200 km의 철도트랙을 관리하고 있는데, 동사의 누적채무는 120억 AD(1억 6천만 달러 상당)에 달하고 있음. SNTF의 승객서비스는 낙후되어 있으며, 철도 시스템은 독립 이후 여타 교통체계와 마찬가지로 투자가 부족한 실정임.
- 대부분의 철도 네트워크는 Ounza의 철광석 광산과 Annaba 항구를 연결하는 300 km의 전기열차를 제외하고는 협궤 트랙임. 철도차량은 현재 교체가 필요하며 트랙과 신호체계 인프라도 업그레이드가 요구됨. 2001년 1월, SNTF는 GM으로부터 3,200만 달러 상당의 기관차 15량을 주문 받았음.

□ 도로

- 알제리에서는 매일 도로에서 1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국도 시스템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2,270억 AD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나 개선속도는 느림.
- 2002년 7월, 유럽투자은행(EIB)이 알제리 순환도로 교차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88,853 km의 국도 가운데 1/3은 간선도로임. 항구와 남부지역의 광산지대 간 도로·철도사정이 열악해 광업개발에 장애를 주고 있음.
- EIB는 마그레브(Maghreb)를 연결하는 고속(자동차) 도로의 알제리 구간에 대하여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 지원계획임. 도로건설이 지연되고 있지만, EIB는 이미 알제리 고속도로에 2억 4,600만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음. 향후 5년간 550억 달러의 정부 인프라 투자 계획에 고속도로 건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Ⅲ 주요 산업

□ 항구

- 알제리에서는 Algiers, Oran, Bejaia, Annaba, Skikda, Arzew 등 현재 9개의 항구가 조성되어 있음. 이중 가장 중요한 알제 항구는 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신규 17.5 ha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항만 수용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하물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즉, 연간 수용능력을 현재의 20만 TEU 수준에서 추가로 25만 TEU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무역개발공사(Trade Development Agency)는 2007~10년에 건설될 제2의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에 자금공여를 승인하였으며, 알제 동부지역의 Bejaia 컨테이너 터미널도 2004년 8월, Enterprise Portuaire de Bejaia와 싱가포르 Portek International간의 계약체결로 업그레이드 공사가 추진되었음. 동 공사로 터미널 처리능력은 40% 이상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 항공 서비스

- 정치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2년 기준으로 알제리 공항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600만 명의 승객과 27,851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최대 공항이었음.
- 알제리에는 Algiers, Oran, Annaba 및 Constantine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60개의 소규모 국내공항도 있음. 최근까지 치안 우려로 이탈리아의 Alitalia 소속 여객기만 운항하였으나, 1994년 12월 알제의 타르머캐덤 활주로(tarmac) 상에서 에어 프랑스(Air France)

알 제 리

소속 여객기가 납치되는 사건⁹⁾ 이후로 9년이 지난 2003년 중반에 에어 프랑스 여객기가 운항을 재개함.

- British Airways도 2004년 1월 알제 취항을 재개하였고 2005년 6월 부터는 Hassi R'Mel의 석유·가스센터에 대하여 매주 취항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항공산업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추진계획으로 국영항공사인 Air Algérie를 부분 민영화하는 사업으로, 2001년 정부당국은 동사의 자본금 49%를 민간투자자에 매각하는 최적의 방법에 대하여 국제적인 컨설팅 기업, Booz Allen & Hamilton에게 자문을 의뢰함.
- 정치적인 저항으로 항공시장의 자유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Air Algérie는 노후 여객기 업그레이드 및 40대의 신규 여객기 구입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2003년에는 Airbus 330-200 5대를 주문하였고, 이후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으로 Boeing 737-800 3대를 추가 주문하였음.

□ 통신

- 통신 산업은 2000년 법률에서 민영화 추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음. 첫 단계로 신규 합작회사인 Algérie Telecom이 우편·통신부로부터 핸드폰 글로벌 시스템(GSM) 네트워크와 유선 서비스의 운영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이에 따라, 독립적인 규제기관(ARPT)의 창설되어 3개의 핸드폰과 1개의 유선 라이선스가 발부됨.

9) 당시의 납치사건에는 이슬람 과격파인 GIA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되며, 마르세유로 이륙하기 이전에 프랑스 치안군인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납치도중 3명의 승객이 살해된 사건임.

III 주요 산업

- 과거 통신분야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알제리는 아직도 비교열위 수준에 있음. 최근 국제통신연합(ITU)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전화가입자(핸드폰 포함)가 인구 천 명 당 2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이집트는 230명, 모로코는 300명 정도).
- 핸드폰의 보급은 2001년 개인 사업자 허가 이후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으로 인구 천 명 당 150명 수준이며 이는 이집트, 튀니지 및 모로코 수준과 유사함. 핸드폰 시장은 2005년에도 급성장하여 현재 핸드폰 가입자는 900만 명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04년 기준으로 사용자는 인구 천 명 당 45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는 2년 전의 16명에 비해 급증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튀니지의 70명에 비해 낮지만 이집트와는 비슷한 수준임.
- 정부는 향후 5년간 정보기술(IT)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가구당 개인용 컴퓨터(PC) 1대를 보급하고 35,000 km 이상 연결하는 광섬유 네트워크를 확대하려는 구상도 포함하고 있음.

7. 금융 · 서비스업

□ 금융

- 1968년 이후 금융 산업은 3대 상업기관에 의해 주도되었음. 즉, 알제리 국민은행(Banque Nationale d'Algerie: BNA), 알제리 대외은

알 제 리

행(Banque Exterieur d'Algerie: BEA), 알제리 국민신용회사(Credit Populaire d'Algerie: CPA)가 그것임.

- 이밖에도 1963년에 설립된 알제리 개발은행(Banque Algerienne de Developpement: BAD), 국민 저축은행인 CNEP 등도 있음. 1980년대 들어 금융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알제리 정부는 특별 분야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함.

- 1982년 농촌개발은행(BADR) 설립

- 1985년 지방개발은행(BDL) 설립

- 알제리에서는 국영은행이 금융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국영은행은 은행자산의 95% 이상을 차지함. 이들은 체계적인 신용위험 평가를 하는 대신, 적자상태의 공적기업이나 체제 내부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경향을 취함. 지속적인 대출손실, 지불유예 및 소극적인 주주성향으로 공적금융기관 관리에 문제점을 노출함.

- 재무부가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악화를 보전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실여신(NPL)은 높아만 가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음. 그 결과, 신용대출은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이뤄지고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대출받기가 쉽지 않음. 결제 시스템도 비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자원배분 기능을 원활히 하고 민간부문의 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개혁이 필수 불가결함.

- 2003년 중 민간은행인 El Khalifa와 알제리 상공업 은행(BCIA)의 파산으로 금융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긴요하였음. 이런 과정에서 2003년 10월, 베나쉴누 재무부장관은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조치를 취하였음. 이에 따라 신규 채택된 법률에서는 중앙은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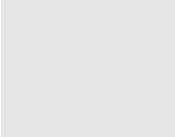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Ⅲ 주요 산업

통화정책, 재무관리 변동 및 외환보유액의 수준과 구성에 대하여 매월 정부에 보고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음.

- 2004년 초 IMF는 알제리 금융 산업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알제리 정부에 금융개혁을 권고하였음. 이에는 상기 2개 파산은행의 즉각적인 민영화, 신용 감독기능 및 청산결제 시스템 제고, 외화자산(원유·가스 수출대금)의 금융시스템 전환 관행 점검 등이 포함됨.
- 2004년 5월, 중앙은행은 외국은행 현지지점에 대해 최소자본금을 종전의 5억 AD에서 20억 AD(2,900만 달러 상당)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함. 알제리에 이미 진출해 있는 13개 외국 은행들은 기존의 최소자본금 비율을 충족하고 있었음.
- 예를 들면, 1997년 알제리에서 외국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진출한 Citibank Algeria는 1,250만 달러 상당의 자본금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음. 이밖에도, Societe Generale, BNP Paribas도 알제리에 진출해 있고, 아랍세계의 최대 은행인 Arab Banking Corporation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아랍계 은행들도 진출함.
- 2005년 5월, 메텔시 신임 재무부장관은 금융 산업의 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음. 이에 따라 국영은행의 최고 경영진을 모두 교체하였고, 알제리 국민신용회사(CPA)의 매각에 동년 9월 프랑스 Rothschild와 Lazard Freres, 스페인 Banco Santander 등이 매수신청서를 제출함.

□ 서비스업

- 정부는 201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현재의 20만 명 수준에서 120



알 제 리

만 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품격의 호텔 편의시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개의 새로운 사업추진에 정부기금을 배정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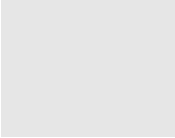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 관광산업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치상황이 실질적으로 안정화될 필요가 있음. 이슬람주의자 폭동사태가 줄어들고 있으나, 2003년 중반에는 남부 사하라 지역에서 유럽 관광객 납치사건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되기도 하였음.
- 2005년 1월에는 프랑스 아코르(Accor) 호텔그룹이 알제리 전역에 36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계약을 현지 Mehri 그룹과 체결함. 동 프로젝트는 알제 등 주요 도시에 각각 6개 정도의 호텔을 운영하고, 그 최초의 호텔은 ‘이비스(Ibis)’ 브랜드로 시작한다는 것임. 이밖에도 Sheraton, Marriott International 등도 2005년 중반에 알제리에서 호텔 영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IV.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가. 외국인투자 정책

- 1993년 10월 5일 알제리 정부는 투자 자유화, 내국인투자와 외국인 투자간 동등한 대우 보장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는 신규 투자법규(Investment Code)를 공포함. 동 개정안 도입은 외채에만 의존해오던 기존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들을 사회 전반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려는 정부 의지에 따른 것임.
- 신규 투자법규의 주요 조항
 - 투자 자유화
 -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간 구분 폐지 및 법적 동등대우 보장
 - 투자 촉진 관련 특혜 부여시 국가개입 세금 감면 등에 한정
 - 투자자본과 수익금의 이전 보장
 - 투자신청 서류 심사·결과 통보에 대한 최대 소요기간(60일) 설정
 - 투자 관련 분쟁시 국제중재 보장
- 1995년 5월, 투자등록 등 투자절차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알제리 투자진흥청(APSİ: Agence de Promotion, de Soutien et de Suivi des Investissements)’이 설립됨.



알 제 리

- 2001년 8월에는 기존의 투자유치관계 법률 및 공기업 민영화 법률을 재정비하였으며,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투자유치 단일창구인 ‘알제리 투자개발청(ANDI: Agence Nationale de Developpement de l’ Investissement)’ 이 설립됨.
- 투자 관련 법령
 - 법령 01-03(2001):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일반규정
 - 행정명령 01-281(2001): 알제리 투자위원회(CNI)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명령 01-282(2001): 알제리 투자개발청(ANDI)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투자는 투자자의 국적, 법인 또는 자연인 및 국내 거주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외국인투자는 기간산업(통신, 전기, 가스 등)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가능함.
- 재화 및 용역 생산과 관련되는 투자는 사전에 별도의 허가 없이 알제리 투자개발청(ANDI)에 투자 신고 및 관련 조세 인센티브 등을 신청함으로써 가능함. 그러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통화 · 신용 위원회(Currency and Credit Council)’로부터 허가가 필요함.
- 투자 신고시 기본적 제시사항
 -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
 - 고용인원
 - 관련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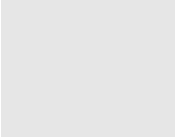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IV 외국인투자 환경

- 재원 조달계획
 - 환경보호 요건
 - 투자관련 계약
 - 예상 투자기간
- 투자자에 대한 권리보장 내용
- 투자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 보장
 - ANDI 결정에 대한 이의시 지방법원 항소나 중재절차¹⁰⁾ 가능
 - 투자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전액 환전 가능
- 알제리는 1990년 아랍마그레브연맹(UMA) 회원국들인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및 튀니지와 ‘투자 진흥 및 보호를 위한 북부아프리카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2001년 11월에는 한국과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동년 12월 EU와 제후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알제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일반제도와 특별제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제정하고 있음.
- 일반제도
 - 특별제도
 - 경제 개발지구로 분류된 특별구역에서의 투자
 - 친환경적인 기술사용 등 알제리 경제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

10) 알제리는 국제투자 분쟁해결 센터 협정인 UN New York 협정(1958. 6. 10)과 Washington 협정(1965)을 비준한 회원국임.



알 제 리

(1) 일반제도에 관한 인센티브

- 투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재화에 대해 할인 관세율 적용
- 투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현지 조달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2) 특별제도에 관한 인센티브

☐ 경제개발지대로 분류된 특별구역에서의 투자

- 초기 투자에 관련된 인센티브
 -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 신고서류 및 증자에 사용되는 등기료는 고정 할인율 적용
 - 투자개발청이 평가 작업을 실시한 후 투자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비용은 정부가 일부 또는 전체 부담
 - 투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거나 현지에서 구입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재화에 대해 할인 관세율 적용
 - 초기 투자기간은 인센티브 부여시 규정
- 실제 영업활동 개시 후 인센티브 부여
 - 10년 동안 법인세 면제
 - 투자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동안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 재정 손실 이월 가능 및 감가상각 기간 조정 등

IV 외국인투자 환경

□ 청정기술 사용 등 알제리 경제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

- 청정기술 사용, 천연자원 보호, 에너지 절약 등 알제리 경제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투자 분야에 있어서, 투자개발청과 투자자간의 특별한 투자협약이 이루어지면(투자위원회로부터의 사전 승인 필요) 특별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정부는 특허 또는 면허 등을 부여함.

(3) 인센티브 부여 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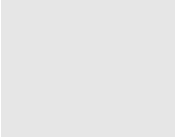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 투자개발청이 인센티브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인센티브 부여 결과 여부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기간은 최대 30일임.
- 투자개발청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이 없거나, 투자개발청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투자자는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국무총리실은 15일 이내 답변 필요)하거나 법원 항소도 가능함.
- 인센티브 부여 결정시 수혜자의 성명, 인센티브 내역 및 투자자의 의무 등이 명시됨.

다. 외국인투자 절차 및 제도

(1) 기업형태 및 설립조건

- 알제리 상법에 규정된 회사형태로는 주식합명회사(SPA), 유한책임회사(SARL), 개인회사(EURL), 연락사무소 등이 있음.

□ 주식합명회사(SPA)



알 제 리

- 알제리 상법 592조의 적용에 따라 주식합명회사의 기본적인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무역등기소에서 신규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신청
- 최소 파트너 수: 7명(정부출자 회사 제외)
- 법정 회계 감사관 임명
- 최소 자본금: 100만 AD

□ 유한책임회사(SARL)

- 알제리 상법 564조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기본적인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무역등기소에서 신규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신청
- 최대 파트너 수는 20명이며, 2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식합명회사(SPA)로 전환 필요
- 법정 회계 감사관의 임명은 선택사항
- 최소 자본금은 100AD

□ 개인회사(EURL)

- 유한책임회사의 파트너가 1명일 경우 개인회사(EURL)로 분류됨.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한 설립절차가 적용되나 유한책임회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자연인은 오직 1개의 개인회사의 유일 파트너 가능
- 개인회사의 파트너는 직접 경영 및 제3자 경영자로 임명 가능
- 개인회사의 파트너는 파트너 회의 소집권한이 있으나 위임 불가능

IV 외국인투자 환경

□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상무부의 허가(2년 단위, 갱신 가능)가 필요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은 금지되어 있음. 급여, 사회보장세 등의 영업비용은 모회사가 알제리 디나르화로 지급해야 함.

(2)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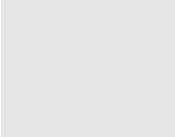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 투자개발청(ANDI)

- 총리 산하에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투자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 지원 및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는 참여·투자진흥부(MDPPI)¹¹⁾ 장관임. 투자수속 지원, 신규회사 설립, 투자자들의 의무 수행여부 관리, 투자 지원자금의 관리 등 투자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함.
- 각 도(wilaya)에 설립되어 있는 투자개발청 사무소마다 투자 관련 관공서 및 기타 기관 등이 단일 창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단일 창구에는 투자수속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www.andi.dz).

□ 투자위원회(CNI)

- 총리가 위원회를 이끌며 투자 관련부처(재정, 통상, 지방 자치제, 투자진흥 등)의 장관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투자 진흥을 위한 전략 및 우선순위 수립, 투자 인센티브 수혜를 위

11) 투자 민영화 정책 담당 부서



알 제 리

한 선행조건 수립, 특별 인센티브 지대 설정 등을 주로 담당함. 또한, 특별 인센티브 협약의 승인과 투자 지원자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연간 예산안을 수립함.

(3) 민영화

- 알제리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1995년에 민영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나 투명성 결여, 국영기업 평가의 어려움,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민영화 추진이 부진함.
- 2001년 8월에 개정된 민영화 법률은 국영기업의 구조, 관리 및 민영화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투자위원회에서 민영화의 절차 및 조건을 허가하고 MDPPI가 민영화 추진을 감독함.
- 알제리 정부는 1,200여개나 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3월에는 원유·가스부문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법안을 채택하였음.
 - 2005년에 알제리의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Sonatrach의 상업적인 기능과 더불어 계약 승인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할 두 가지 기구가 설립되어 2005년 4/4분기부터 활동을 개시함
 - 원유·가스 가격안정 기구(Agence Nationale pour la Valorisation des Hydrocarbures): 원유·가스 탐사계약과 개발계획 승인 담당
 - 원유·가스 규제 당국(Autorite de Regulation des Hydrocarbures): 송유관, 저장시설을 포함한 원유·가스 유통 부문 감독 기구

– 민영화 관련 일반규정 사항

- 정부의 투명성 및 공공 규정 부합여부
- 부적절한 정보공개 및 정부거래에 대한 법적 구속력
- 인수 국영기업의 현대화, 고용 및 고유기능 유지 책임 등

2. 외국인투자 여건

가. 무역 및 관세제도

(1) 무역 제도

- 1991년부터 무역 자유화가 시작되어 1995년 이후로는 무역에 관한 정부의 독점이 폐지되면서 수출입 행정절차가 간소화됨.
- 알제리 정부는 EU와의 제후협정(2005. 9. 1자 발효) 및 WTO 가입 예정(2006년 상반기)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정책을 추진함.
- 알제리 무역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무역활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외환거래 제약이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아직도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음.

□ 수입관리제도

- 무역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가되며, 수입자는 수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공증된 알제리 내 은행의 지정계좌를 개설해야 함. 본 지정계좌는 알제리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름.

알 제 리

- 알제리 내의 모든 회사는 외환제도 및 무역제도 규정에 따라 지정 은행을 통하여 수입가격에 해당하는 외화를 자국통화로 구입하여 수입 비용을 지불함. 알제리 내의 외국인기업에도 내국인기업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 외화계좌를 가지고 있는 수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수송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수입된 제품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 및 지정계좌 개설 등의 절차가 면제됨.
- 2005년 9월 30일부터 알제리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들에 대해 최소 자본금 50만 디나르(7천 달러 상당)의 무역업 법인을 설립토록 함.¹²⁾
- 최근 알제리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금액의 허위신고, 탈세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알제리 정부는 시장질서의 확립과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소자본금 2000만 디나르(28만 달러 상당)의 유한책임회사만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¹³⁾
- 알제리 정부는 공공 위생·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 규제·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사전 허가품목: 화장품, 위생관련 제품, 중고 의류, 의약품, 무기, 군수품, 식물, 동물 등
 - 수입 금지품목: 중고 타이어, 담배(허가받은 법인 제외), 와인, 돼지고기류 등

12) 알제리 한국대사관.

13) KOTRA 국가정보.

□ 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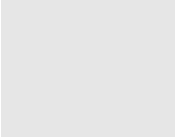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 대체로 통관절차는 4~5일 정도가 소요되며, 수입자가 21일 이내에 수입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물품은 세관당국에 최대 4개월 동안 보관되며 이후에는 공공 경매 처리됨.
- 식료품, 화장품 및 위생관련 제품에 대한 표기 조건
 - 아랍어 표기 포함
 - 표기는 포장의 일부여야 함(스티커 금지)
 - 모든 내용물 표시 및 수량 명기
 - 공급자 및 수입자의 구체적인 이름 및 주소를 아랍어로 제공
 - 제조 연월일 및 유효기간 표시 등

□ 수출관리제도

- 수입제도와 마찬가지로 공증된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를 함. 용역 수출은 재화의 수출 절차 및 조건과 동일하나 알제리 중앙은행의 특별한 허가가 있지 않는 한 용역수출의 소득은 알제리 디나르화로 전부 환전해야 함.

(2) 관세제도

- 2001년 알제리 정부는 최대 관세 부과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하는 등 관세 인하 및 제도 간소화 정책을 실시함.
- 알제리의 관세부와 대상품목은 HS(Harmonized System)에 따라 분류되고 있음. 2002년 1월 1일부터는 <표 IV-1>에서와 같이 5%,



알 제 리

15%, 30%의 3단계 관세율이 부과되는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60%에 달하는 임시 추가세 부과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부과 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됨.

-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실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화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할인(5%)이 적용됨. 관세 할인의 특혜를 받기 전에 수입자는 알제리 투자개발청에 먼저 신청을 해야 함.
- 투자실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출품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된 재화 등에 대해서도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짐.
- 관세 면제조건
 - 알제리 내무부, 지방단체 및 환경단체 등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환경 보호용 기기 및 설비를 기부하는 경우
 - 알제리 정부가 재화 및 용역의 수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 외국인기관 또는 국제기관의 원조로 재화·용역을 수입하는 경우
- EU와의 제휴협정은 2017년까지 알제리와 EU 회원국간의 자유무역 체제 구축, 과도기 동안 EU 회원국의 공산품에 대한 점진적인 관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참고 3> 알제리-EU 제휴협정

- EU와 알제리는 2002년 4월 제휴협정에 서명했으나, 실제로 협정이 발효된 것은 2005년 9월 1일임.
- 이 같이 제휴협정에 대한 비준이 수년간 지연된 것은 알제리의 무역 개방정도에 대한 국내 정치계의 의견 분열이 주된 이유임.
- 또한, 2004년 5월 EU 회원국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제휴협정을 비준하는 절차가 예전보다 길어진 데 따른 것임.
- 2004년 4월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flika)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치계의 분열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함.
- 주변국인 튀니지, 모로코가 체결한 다른 유사한 협정이 이 두 국가의 경제 자유화, 민영화, 외국인투자 유치 부문 등에서 도약의 발판을 제공한 것처럼 EU와의 제휴협정은 알제리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튀니지는 유사한 협정의 체결로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음.
- 이번 협정으로 알제리 내 제조업 부문은 더욱 격화된 경쟁 환경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됨.
- 알제리 상무부는 EU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자국 내 산업(예: 설탕 정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함.

알 제 리

<표 IV-1> 관세개혁에 따른 관세율 요약

단위 : %

관세 개혁	
원자재 및 설비재	5
반가공제품 및 중간재	15
완제품	30
임시 추가세 부과	
2002. 1. 1	48
2003. 1. 1	36
2004. 1. 1	24
2005. 1. 1	12
2006. 1. 1	0

자료: EIU, *Country Profile*, 2005.

- 알제리산 공산품이 이미 EU시장에서 무관세 및 쿼터페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신 알제리 정부는 EU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또한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함.
- EU와의 제휴협정(2005. 9. 1자 발효) 및 WTO 가입 예정(2006년 상반기)에 즈음하여 알제리는 2005년 1월 1일부터 <표 IV-2>의 개선된 관세법을 시행함.

IV 외국인투자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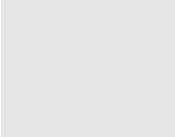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표 IV-2>

관세법 개정안 총괄표

단위 : %

수입품 통관 세목	'00	'01	'03	'05	비 고
관 세 (D D)	0	0	0	0	원자재 및 설비재 : 5%
	5	5	5	5	반가공 제품 및
	25	15	15	15	중간재 : 15%
	45	40	30	30	완제품 : 30%의 세율 을 적용하여 자국내 생산과 투자유치를 유도
세관당국 책정	5~45		폐지	-	국내산업 보호
과세표준가					목적으로 적용하던
적용 세율(VA)					VA 폐지
추가특별세 (TSA)	5~120		폐지	-	
특별소득세 (TIC)	-	10~90	10~90	10~100	2001년 7월 보통재정법으로 신설한 6개세율
임시 추가세 (DAP)	-	60	48	12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
부가가치세 (TVA)	7	7	7	7	2개의 세율(7%, 17%) 로 단순화
	14	17	17	17	■ 7% : 식료품
	21	-	-	-	■ 17% : 자동차, 전자 제품 등
세관수수료 (RD)	0.4	0.4	0.4	폐지	2004년 폐지
세관서류양식세 (RED)	2	2	2	폐지	2004년 폐지

자료: 주 알제리 대사관 재외공관.



알 제 리

(3) 자유무역지대(Free Zones)

– 알제리의 자유무역지대 특징

- 자유무역지대 내 투자에 대한 모든 세금 및 관세 감면
- 자유무역지대 내 재화 및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행해지는 무역, 투자 및 영업활동에 대하여 은행 시스템과 관련된 제약이나 조건 비적용
- 자유무역지대 내의 무역업자와 국내의 무역업자간 재화 및 용역 교환은 대외무역으로 간주되어 국내 은행시스템의 제약이나 조건 적용

– 1997년 4월 지젤(Jijel) 주의 Bellara 지역에 유일의 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음. 2004년 12월 1일 알제리 정부가 동 지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여 공업지대로 전환됨.

나. 외환제도

- 알제리의 외환시장은 일반은행과 공증된 금융기관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다소 제약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적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 및 외환보유액을 조정하며 외환시장에 개입함.
- 알제리 중앙은행은 원유·가스 수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등 외환거래에 있어서 여전히 독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1997년 이후로는 해외여행을 위한 자국민의 환전을 1년에 15,000디나르(200달러 상당) 이내로 허용하도록 규정이 개정됨. 이러한 제약

IV 외국인투자 환경

적인 외환시장 구조는 알제리 내 암시장의 출현을 유발함.

- 수출입, 운송, 보험, 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대금 결제에 제한적으로 외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외환거래는 중앙은행으로부터 공증된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시 현금이나 이월 지불이 가능함.
-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자연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공증된 금융기관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해야 함. 외화계좌는 단수 또는 복수 발급이 가능함. 무역업자가 외화표시 수입품 가격에 대응하는 디나르화를 본 계좌에 예치하면 거래 은행에서 외화로 환전을 하게 됨.
-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예: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 알제리 내에서 재화 및 용역의 송장은 디나르화로 기재해야 함.
- 외국인투자자는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초기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60일 이내로 영업 이익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음. 외국인 근로자는 봉급의 일부(일반적으로 50%)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의 양도 또는 청산으로 발생한 이익의 해외 송금도 가능함.
- 비효율적인 은행 시스템으로 외국 송금을 위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허가를 받는 데에는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할 수도 있음.
- 알제리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은행권이나 여행자수표를 무제한으로 반입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함.
- 반면, 알제리에서 출국하는 여행자가 출국시 반출하려는 액수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소지하고 있는 모든 은행권 및

알 제 리

여행자수표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음(신용카드 및 은행수표 등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음)

- 입국시 세관에 신고된 액수에서 공증된 중개기관으로 이전된 금액을 차감한 액수와 일치할 경우
 - 통화 계좌로부터 인출된 금액과 일치할 경우
 - 외환거래 허가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해외 의료비 등)
- 엄격하고 관료주의적인 알제리의 외환관리 제도는 자본의 이동과 돈 세탁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유가 하락에 대비하여 적절한 국제수지를 유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함.

다. 금융제도

□ 개요

-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통화정책 및 금융제도 수립, 신규 은행 및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허가, 일반은행 및 금융기관 감독, 외환보유액 및 환율 관리, 외환거래 감독 등의 기능을 함.
- 이외에도 알제리 국민은행(BNA), 알제리 대외은행(BEA), 알제리 국민신용회사(CPA), 알제리 개발은행(BAD), 국민 저축은행(CNEP), 농촌개발은행(BADR), 지방개발은행(BDL) 등의 국영은행 및 상업기관이 있음.
- 국영은행들은 알제리 내 전체 은행자산의 95%를 차지하는 등 금융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주로 상환능력이 없는 국영기업에 대출을 하고 있고, 신용위험 평가 체계 또한 미흡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

IV 외국인투자 환경

- 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도 부진한 상태임.
- 2003년 민간은행인 El Khalifa와 알제리 상공업 은행(BCIA)의 파산으로 비효율적인 은행제도의 개혁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동년 10월 베나셰누 재무부 장관은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협력체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이 제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채무관리, 외환보유액의 구성에 대하여 매달 정부에 보고해야 함.
 - 현재 13개 외국은행이 영업 중이며, 주요 은행으로는 Citibank, Societe Generale와 BNP Paribas, 아랍지역의 최대 은행인 Arab Banking Corporation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아랍계 은행 등임.
 - 2004년 5월 중앙은행은 외국은행에 대한 최소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5억 AD에서 20억 AD(2,900만 달러)로 상향조정 할 것을 요구함. 또한, 모든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의 건전성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알제리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는 미약한 편이며, 관료주의적인 금융거래 관행으로 대출 심사절차 등의 처리·소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 신용위험 평가 및 관리 부문의 전문성 부족, 신뢰할 수 있는 재정 및 회계 정보 부족¹⁴⁾ 등이 금융제도 및 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4) 민간기업의 50% 정도만이 회계 감사를 받고 있음.

알 제 리

□ 은행법

- 1990년의 은행법을 개정된 법률이 2003년 8월 26일 발표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통화·여신위원회는 건전성 비율, 회계기준, 신규 은행 및 금융기관 설립과 관련된 기준 수립 등의 기존 업무와 더불어 통화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권한이 부여됨.
 - 은행위원회의 회계 감사기능 강화
 -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합동위원회 구성으로 외채 및 대외자산 관리에 대한 감독 기능 수행
 - 더욱 엄격해진 신규 은행 및 금융기관의 설립 허가기준 적용(최소 자본금 인상 등)
 - 리스크 관리 및 부실대출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회계감사원 이사회 구성 등

라. 조세제도

(1) 조세 행정체계

- 재무부내 국세총국 산하에 전국 각 지역을 담당하는 9개의 지역사무소가 국세를 담당함. 본 지역사무소 산하의 세무 감독관청이 각 주별로 지방세를 담당함.

(2) 법인세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알제리 내의 모든 기업들은 기업의 형태 및

IV 외국인투자 환경

영업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 합자회사 및 합작투자
- 주식합명회사가 아닌 비영리 기업
- 상호출자자금
- 식료품 생산·가공·유통회사 및 조합
- 공증된 농업 관련 공급 협동조합
- 기업 및 정부기관에 대한 소비자협동조합

– 법인세 영구 면제 대상

- 정부 및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구매협동조합
- 장애인협회에 속하는 회사
- 상호농업보험 회사
- 농업 관련 구매 및 공급 협동조합

– 법인세 임시 면제 대상

- 법률에서 정한 투자개발과 관련된 특별혜택을 누리는 기업: 10년
- 여행사를 제외한 관광부문 회사: 10년
- 수출을 위한 판매 및 서비스 행위(이익의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며 육지·수상·항공 교통수단, 재보험 회사 제외): 5년

– 기본 법인세율은 30%이며, 대출·예금·보증 소득세는 10%, 서비스 소득세는 24%임. 2003년 이후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기존의 30%에서 완전 폐지됨.

– 납세자는 영업개시 후 30일 이내로 관할 조세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알 제 리

하며, 법인세 신고는 매년 4월 1일 전까지 해야 함.

(3) 개인소득세

- 알제리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과세 대상이 되며, 다음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됨.

- 연간 총순소득이 6만 AD이거나 이하인 경우
- 외국 국적의 대사, 영사, 및 외교관(상호주의 적용)

- 개인 소득세는 <표 IV-3>과와 같이 0~40%의 누진세가 부과됨.

<표 IV -3> 개인소득세율 요약

단위 : AD, %

과세부과 대상 연간 소득	세 율
60,000 이하	0
60,001~180,000	10
180,001~360,000	20
360,001~1,080,000	30
1,080,001~3,240,000	35
3,240,000 초과	40

자료: KPMG, *Investment in Algeria*, 2004.

- 임대 소득세는 10%, 대출·예금·보증 소득세는 0%, 배당세는 15%, 자산매각 소득세는 15%, 20만 AD 이하의 이자 소득세는 1%이며, 20만 AD를 초과하는 이자 소득세는 10%임.

(4) 부가가치세

- 국내에서 발생한 판매, 수리·공사, 은행 거래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7%임.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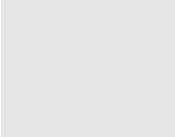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 투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현지 조달된 재화 및 용역: 감면
- 제약품 판매, 특정한 종류의 자동차 판매
- 석유회사의 영업을 위해 구입된 재화 및 용역
- 개인의 주택 마련 또는 공사를 위한 은행 대출
- 개인의 보험 계약
- 임시 세금면제 상태의 수입 재화
- 면세품

(5) 원유·가스 부문에 대한 조세 제도

- 원유·가스 부문은 원유법(86-14, 1986. 8. 19)과 일반적인 조세법을 따르며, 소득세는 유전·천연가스전의 발견, 탐사, 시추, 송유관 수송 등 생산단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됨.

- 유전 및 천연가스전의 발견, 탐사 및 시추 활동에 따른 소득세율은 85%이며, 송유관 수송 및 분리·정제, 가스액화 작업에 따른 소득세율은 38%임. 또한, 육지 및 해외의 유전 및 천연가스전에서 추출된 원유·가스에서 발생된 소득은 로열티(20%) 과세부과 대상임.

- 유전 및 천연가스전의 발견, 탐사 및 시추, 송유관 수송 및 분리·정



알 제 리

제, 가스액화 작업을 하는 기업들은 다음의 조세 부과를 면제함.

-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 관세, 로열티
- 연방 및 지방정부 소득세
- 배당세
- 직업활동세

(6) 기타 세제

- 직업활동세는 연간 회사거래액(VAT 공제 전)의 2%로 고정되어 있고, 급여세는 2%로 고용주가 부담하며, 부동산 등록세는 5%임.
- 담배제품에는 17%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소비량에 따라 다른 세율을 부과함.

(7) 조세협정

- 1990년 초 세제개혁 이후 알제리 정부는 이중과세 및 조세 사기·탈세를 방지하여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국가들과 조세협정을 맺음. <표 IV-4>는 알제리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현황임.

IV 외국인투자 환경

<표 IV-4>

이중과세 방지협정 현황

국	가	서	명	일	자	비	준	일	자
튀니지				1985.	2. 9			1985.	6. 11
리비아				1988.	6. 19			1989.	9. 26
모로코				1990.	1. 25			1990.	10. 13
아랍 마그레브 연맹				1990.	7. 23			1990.	12. 22
이탈리아				1991.	2. 3			1991.	7. 20
벨기에				1991.	12. 15			2002.	12. 9
터키				1994.	8. 2			1994.	10. 2
루마니아				1994.	8. 28			1995.	7. 15
인도네시아				1996.	4. 28			1997.	9. 13
포르투갈				1997.	3. 10			-	
시리아				1997.	9. 14			-	
요르단				1997.	9. 16			2000.	12. 17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8.	4. 28			2000.	5. 7
니제르				1998.	5. 26			-	
카타르				1998.	8. 5			-	
불가리아				1998.	10. 25			-	
말리				1999.	1. 31			-	
캐나다				1999.	2. 22			2000.	11. 16
프랑스				1999.	10. 17			2002.	4. 7
베트남				1999.	12. 6			-	
폴란드				2000.	1. 31			-	
오만				2000.	4. 9			-	
바레인				2000.	6. 11			-	
인도				2001.	1. 25			-	
이집트				2001.	2. 17			2003.	4
아랍에미리트				2001.	4. 24			2003.	4
한국				2001.	11. 24			-	
예멘				2002.	1. 29			-	
레바논				2002.	3. 26			-	
이디오피아				2002.	5. 26			-	
스페인				2002.	10. 7			-	

자료: Ministry of Particip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마. 노동제도

(1) 인구 및 실업

- 2004년 말 현재 알제리의 총인구는 3,236만 명이며, 최근 인구증가율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 인구 분포는 매우 불균칙한 편이며, 대부분의 국민이 북부에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음.
- 2002년 기준 성인 문맹률이 31%에 달하는 등 교육수준은 낮은 편으로 양질의 노동력이 부족함. 아랍어가 공식 언어이며, 사실상 불어가 비즈니스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 영어를 구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이 어려움.
- 2004년 말 현재 23.4%를 기록하고 있는 높은 실업률의 타개 및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정부 개혁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임.

(2)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 원칙적으로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근로자만이 고용될 수 있으나, 알제리와 고용에 관한 특별 협정을 맺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이 원칙에서 면제됨.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 고용 계약서 발급
 - 고용 및 사회연대 부처로부터 입국 비자 발급
 - 노동부의 취업허가증(2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 가능) 발급
 -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거주허가증(고용 계약기간 동안 유효) 발

IV 외국인투자 환경

급. 거주허가증 발급시 여권 사본, 고용 계약서 사본, 주거 확인서 사본, 건강진단서, 사진 및 납세필 인지 등 필요.

(3) 근로조건

- 노동법은 고용계약의 자유 및 근로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음.

□ 근로조건 기준

- 최소 고용 연령: 16세
- 일일 근무 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당 근무 시간: 40시간(전시간제), 20시간(시간제)
- 시간외 근무: 법정 근무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야간근무: 오후 9시와 오전 5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무를 가리키며 19세 이하의 근로자 및 여성 근로자는 야간근무가 금지됨(업무 또는 직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할 노동당국이 야간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제외)
- 최저 임금: 기존의 8,000디나르(약 100달러)에서 2004년 10,000디나르(약 140달러)로 상향조정됨.
-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 시간급의 최소 50% 이상
- 법정공휴일: 1월 1일, 3월 8일, 5월 1일, 6월 19일, 7월 5일, 11월 1일은 일반 공휴일이며, Aïd El Adha, Awal Moharem, Achoura, Mouloud, Aïd El Fitr 등의 이슬람 종교와 관련된 공휴일은 이슬람력에 따라 매년 일자가 변동됨.
-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매년 최대 30일의 유급휴가(근로자가 근

알 제 리

무한 매 달마다 유급휴가 2.5일 적용)를 가짐.

- 외국인근로자들은 봉급의 일부(일반적으로 50%)를 본국으로 송환하고 나머지는 알제리 디나르화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간의 계약 조건에 의해서 달라짐. 한편, 정부나 국제기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알제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해당 계약조건을 따름.
- 알제리는 프랑스, 벨기에, 루마니아, 튀니지, 이집트와 사회보장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협정을 체결함. 이들 국가 출신의 근로자들은 각 협정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자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됨.

□ 고용주의 의무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총봉급의 26%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고, 근로자들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관할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고용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48시간 이내에 이를 관계 고용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고용주는 매년 1/4분기에 자사 외국인근로자의 명단을 작성할 의무가 있음.

□ 해고에 따른 배상

- 정리해고의 경우:

- 정리 해고된 근로자는 3달치 봉급에 준하는 배상을 받음.

IV 외국인투자 환경

–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의 경우:

- 각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배상 가능 여부가 정해지며, 근로자가 근무한 매년마다 1달치 봉급에 준하는 배상금액(최대 15개월치) 수령

<참고 4> 사회보장제 제도

- 고용주는 영업활동 개시 10일 내로 관할 사회보장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10일 내에 관할 사회보장사무소에 고용 신고를 해야 함.
- 사회보장제는 봉급의 35%로, 고용주가 26%, 근로자가 나머지 9%를 부담함.

<표> 사회보장제의 구성 요약표

단위 : %

항 목	고 용 주 부 담	근 로 자 부 담	총 계
사 회 보 험	12.5	1.5	14
고용 상해 및 질병	1.25	–	1.25
퇴 직	9.5	6.5	16
실 업 보 험	1.25	0.5	1.75
조 기 퇴 직	1	0.5	1.5
근로 자기금	0.5	–	0.5
총 계	26	9	35

자료: Ministry of Particip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1.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현황

(1) 연도별 교역현황

□ 1998년 이후 교역규모 확대, 2005년 들어 수출증가세 둔화

- 우리나라의 대 알제리 수출은 1993년 4,7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5년 후인 1998년에는 1억 8,900만 달러로 4배 가량 증가하는 등 수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2005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을 보임. 이는 2005년 하반기부터 알제리 정부가 시장질서의 확립과 세수 증대를 위해 수입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임.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표 V-1>

연도별 한-알제리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상품수출		상품수입		상품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1993	47	-21.4	44	-35.1	3
1994	48	0.9	19	-55.6	29
1995	50	5.4	151	681.4	-101
1996	73	46.5	179	18.2	-106
1997	74	0.4	124	-30.6	-50
1998	189	155.8	59	-52.4	130
1999	249	31.9	76	29.2	173
2000	180	-27.4	66	-13.6	114
2001	153	-15.4	115	74.3	38
2002	186	22.1	205	78.5	-19
2003	225	20.5	192	-6.5	33
2004	355	57.9	240	25.5	115
2005	340	-4.0	166	-30.9	174

자료: KOTIS.

- 지난 2005년 말부터 알제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스템 개혁으로 은행들의 여신관리 및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최근 신용장개설 등의 업무가 다소 지연¹⁵⁾ 되고 있고, 신수입제도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은 대 알제리 수출증가율이 둔화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05년 9월 1일부터 발효된 알제리-EU 제후협정에 따라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알제리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15) KOTRA, 알제리의 금융시스템 개혁, 2006. 2.

알 제 리

- 한편, 원유·천연가스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 알제리 수입은 1998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2억 4,000만 달러에 달하였으나 2005년에는 전년 대비 30.9%가 감소한 1억 6,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 알제리 상품수지는 1998년 이래로 대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억 7,400만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2) 품목별 수출입 동향

<표 V -2>

대 알제리 주요 수출품목 현황

단위 : 천 달러, %

	2003년		200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224,591	20.5	354,545	57.9
승 용 차	22,922	32.5	73,602	221.1
화 물 자 동 차	49,598	54.9	66,556	34.2
무 선 전 화 기	11,635	102.8	30,118	158.9
컬 러 T V	26,825	10.9	27,858	3.9
화 학 기 계	849	-92.0	20,504	2,315.4
무 선 수 신 기	14,563	83.9	20,175	38.5
무 선 통 신 기 기 부 품	20,160	379.7	18,339	-9.0
합 성 수 지	9,966	-24.9	14,284	43.3
자 동 차 부 품	7,758	25.2	12,024	55.0
냉 장 고	2,456	-15.9	6,939	182.5

자료: KOTRA.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표 V-3>

대 알제리 주요 수입품목 현황

단위 : 천 달러, %

		2003년		200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191,656	-6.5	240,486	25.5
원	유	-	-	108,743	-
천	연 가 스	-	-	76,788	56.0
L	P G	142,364	-20.1	44,293	-68.9
나	프 타	-	-	10,433	-

자료: KOTRA.

□ 주요 수출품목은 운송기계, 전자제품·부품

- 대 알제리 주요 수출품목은 운송기계(승용차, 화물차 등)를 비롯한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제품·부품, 화학제품 등임.
- 2004년 수출증가율은 57.9%를 기록하였고, 특히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무선전화기, 냉장고, 합성수지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컬러TV, 무선수신기,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의 수출증가율은 전년 대비 둔화세를 보임.

□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 대 알제리 수입품목 중 원유와 천연가스 등 광물성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2004년 수입증가율은 25.5%를 기록하였고, 천연가스의 수입증가율은 전년 대비 56.0%를 기록한 반면 LPG 수입증가율은 전년 대비 -68.9%를 기록하였음.

알 제 리

□ 우리나라의 70위 수출상대국

- 알제리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상대국 중 70위이며(2005년 기준), 수입은 59위를 기록하고 있음.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 대 알제리 투자는 미미한 편

- 우리나라의 대 알제리 총투자는 2005년 12월 말 현재 5건, 2억 1,954만 달러임.
- 업종별로는 투자건수 기준으로 숙박음식업이 1건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 1건(10.6%), 도소매업 2건(7.5%), 건설업 1건(0.0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V-4> 대 알제리 해외직접투자 현황(2005년 12월 말 현재)

단위 : 천 달러

	총신고		총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0	125,479	0	85,479
2001	0	0	0	95
2002	0	0	0	159
2003	0	0	0	666
2004	1	7,205	0	1,667
2005	1	384	2	2,751
누 계	5	342,335	5	219,54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 대 알제리 금융지원 현황(2006년 1월 말 기준)

단위 : 천 달러

구 분	승인액	집행액	대출잔액
대 출	38	38	38
보 증	4,950	4,950	4,950
합 계	4,988	4,988	4,988

□ 주요 지원프로젝트 현황

단위 : 천 달러

프로젝트	관련업체	지원종류	보증승인액
(주)화인텍 플라스틱 제품 수출	(주)화인텍	선수금 환급보증	4,950 (4건)

2. 진출확대 방안

가. 우리나라의 진출현황

- 1988년 알제리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한 대우건설의 힐튼호텔 건축을 시작으로 하여 원유·천연가스 탐사 사업, 대우자동차 등이 진출한바 있으나 대부분 이미 매각·철수되었거나 청산 절차 중임.
- 최근 우리나라의 KT가 Algerie Telecom과 함께 알제리 내 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급을 위한 합작투자를 진행 중이나 현지 여건상 가까운 시일 내의 진출은 어려운 실정임.¹⁶⁾

16) KOTRA, 우리나라의 대알제리 투자진출 현황.

알 제 리

- 현지에는 KOTRA 알제리 지사(관장 1명 상주)를 비롯하여 7개의 기업(총직원 약 50여명)이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민은 약 80명이 체류 중임.

나. 주요 경쟁국의 진출현황¹⁷⁾

□ 유럽

- EU는 알제리 전체 수출의 55%, 수입의 57%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2005년 9월의 알제리-EU 제휴협정 비준으로 점진적으로 양국간의 관세가 폐지되면서 상호간의 무역 및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에너지 분야에 있어 유럽국의 투자가 활발하여 2002년 말 AGIP(이탈리아), Respol(스페인), Cespa(스페인), Total Fina Elf(프랑스), Medex(사이프러스) 등이 알제리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와 원유·가스개발 및 생산 계약 등을 체결 중임.

□ 미국

- 원유·가스부문 개발이 미국의 주된 투자 분야이며, 2001년 7월 기준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액은 3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외에도 은행(Citibank), 제약(Pfizer), 음료수(Coca-Cola, Pepsi), 화물배송(DHL) 부분에 진출하였음.

17) 본 부분은 외교통상부 아프리카 진출가이드(2003. 6)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 일본

- 비석유류 부문의 기업은 철수한 상태이나 LPG 공장 확장·건축, 가스운반선 수주 등 에너지 개발관련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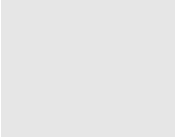
- 기업차원의 대 알제리 직접투자는 중소기업(벽돌, 철물, 도자기 공장 등), 건설(호텔 건축, 주택 건설)이 주된 투자분야임. 중국은 특히 알제리 관광분야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중국 국영 석유공사(CNPC)는 알제리 정부와 Sonatrach가 추진한 원유 탐사 및 생산활동을 위한 입찰에 다른 4개 기관과 함께 낙찰됨.

다. 분야별 진출확대 방안¹⁸⁾

□ 에너지 분야

- 원유·가스 산업은 2003년 기준으로 GDP의 40%, 총 상품수출의 97%, 재정수입의 69%를 차지하는 알제리의 최대 산업임. 1991년 이후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하여, 원유·가스 탐사 및 개발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원유·가스 플랜트 건설 및 설비공급, 정유시설·발전소 건설 등의 플랜트 부대사업 이외에도 알제리의 국제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원유·가스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국가와의 공동 참여를 통하여 이 분야의 진출 확대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임.

18) 본 부분은 주알제리 대사관 재외공관이 작성한 '양자 경제 통상관계(2006. 1. 18)'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알 제 리

□ 정보·통신 분야

- 알제리의 정보·통신 산업은 2000년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률이 수립된 이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2005년에는 휴대폰 가입자가 900만 명을 초과하였고, 2004년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인구 천 명 당 45명에 근접하였음.
- 알제리 정부는 Sidi-Abdellah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사업, 전국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정보 인프라 구축 계획, 전자정부(e-government) 등 향후 5년간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를 계획임.
-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대외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제리의 통신망 구축, 정보·통신 기자재, 이동통신 부대사업 등에도 진출 타당성과 잠재력이 클 것으로 분석됨.

□ 건축·건설 분야

- 알제리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주택문제임. 국영 소유 시멘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및 알제리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의 부족으로 2005년 9월 현재 200만호의 주택이 부족한 실정임.
- 알제리 정부는 '2005~2009년 경제개발 개혁'의 일환으로 6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은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중심적인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건설프로젝트 경험 및 노하우에 비추어, 알제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진출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음.

아프리카 신흥 에너지 강국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이집트 · 나이지리아 · 알제리

발행일	2006년	3월	2일
발행인	신	동	규
편집인	이	재	민
발행처	한	국	수출입은행

우편번호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641
